

인구변화와 대응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부위원장 서형수

인구변화 양상 [인구<재난>]

· 지난 40년 → 저출생 <지진>

	1980년	2020년
출생아수	86만	27만
출산율	2.82 (주요국 최고)	0.84 (세계 최저)

· 앞으로 40년 → 고령화 <쓰나미>

	2020년	2060년
노인인구	813만	1,882만 (기간 중 총인구는 900만명 감소)
고령화율	15.7% (주요국 최저)	43.9% (세계 최고)

· 사회성격

	1980년	2020년	2060년
중위연령	21세 (청년사회)	43세 (중년사회)	61세 (노년사회)

(2년에 1세 씩 노령화)

인구변화 (인구문제)

A. 저 출생

- 대체출산율(2.07) 미달
- 인구재생산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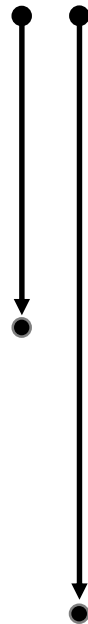
B. 고령화

- 연령층별 인구분포 불균형
- 노년부양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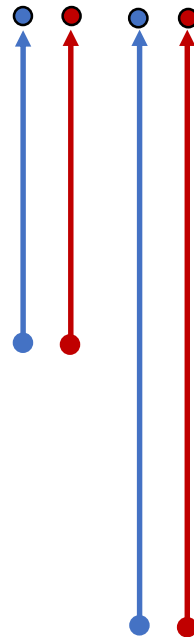
C. 지역소멸

- 지역별 인구분포 불균형
- 균형발전 저해

영향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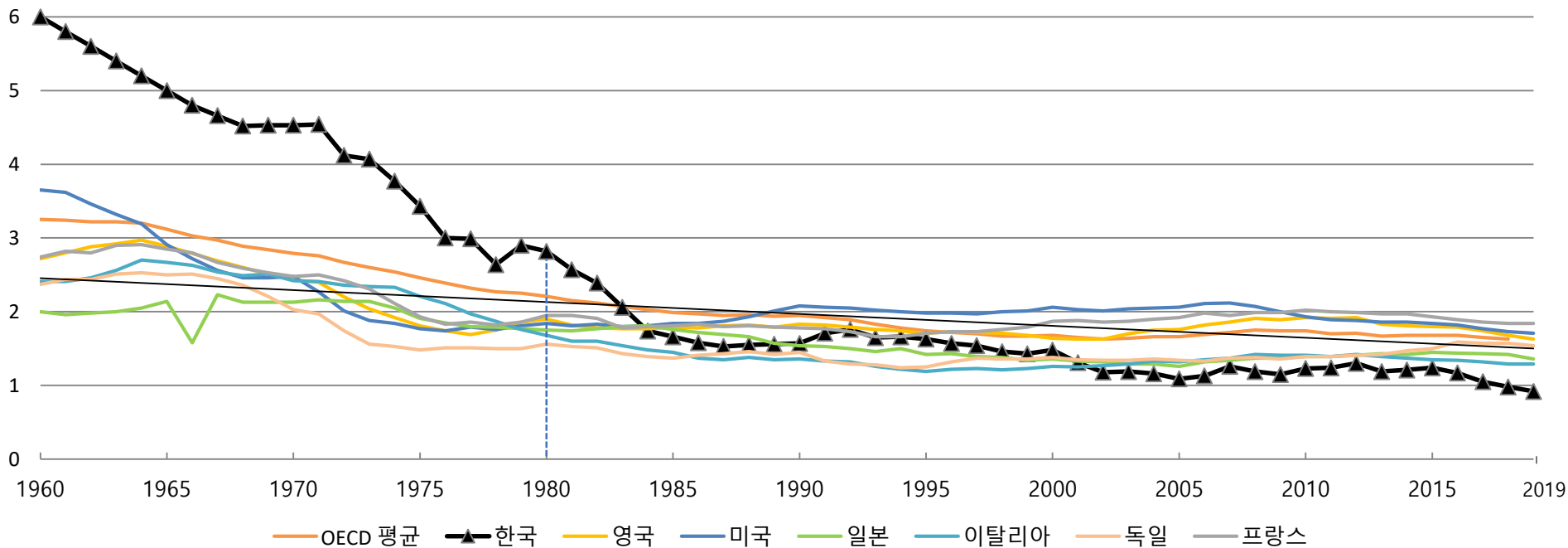


<원인 → 결과>

- > 완화피드백(적응성공)
- > 강화피드백(적응실패)

주요국 출산율 추이

합계출산율(T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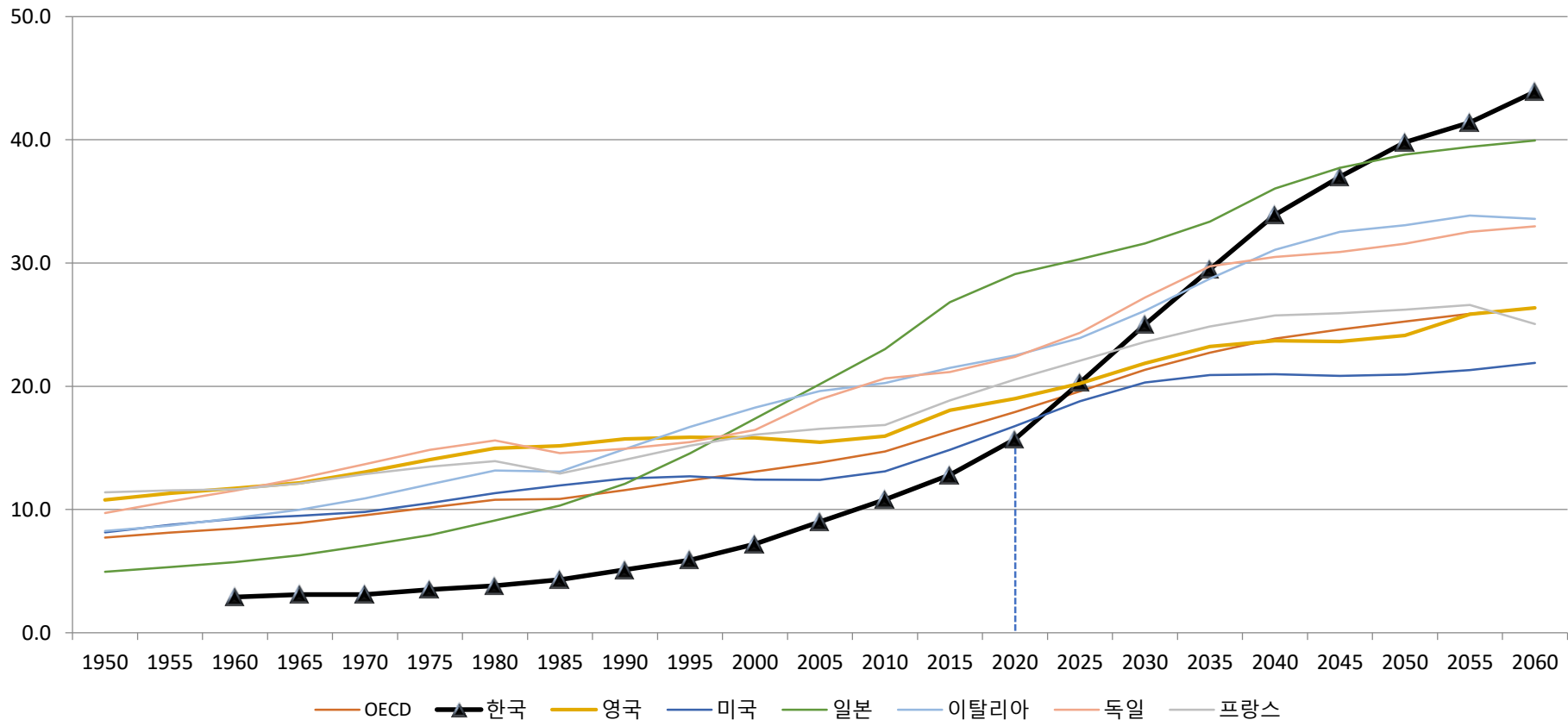
(단위 : 여성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 명)

국 가	상대적 고출산 (1.9~2.1)				상대적 중수준 출산 (1.6~1.8)				상대적 저출산 (1.4 내외)				초저출산 (1.3미만)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프랑스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폴란드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합계출산율	3.01	2.09	1.88	1.84	1.71	1.66	1.63	1.54	1.42	1.36	1.30	1.29	0.92

* 출처 : 각 국 통계청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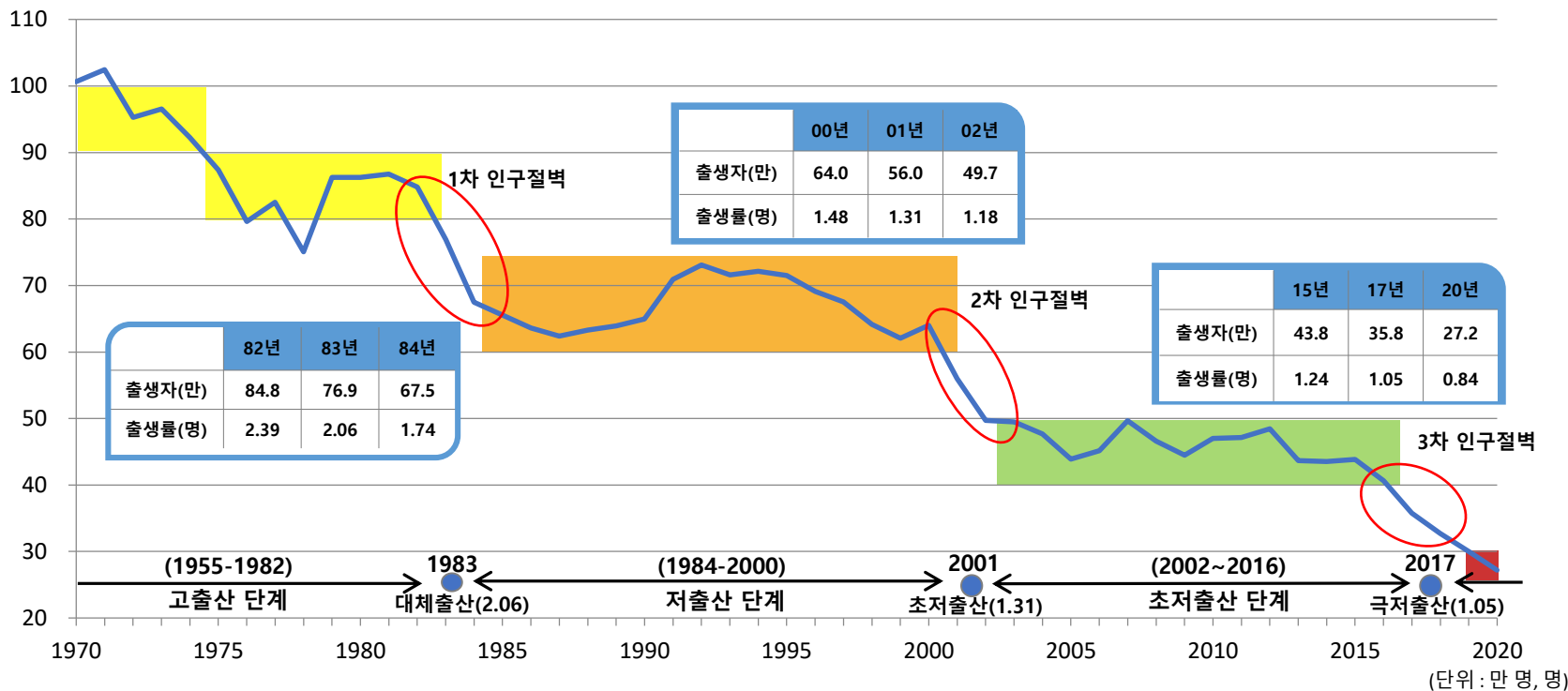
(단위 : %)



* 주요국 자료 출처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1950-2050)」 (‘20.02.25)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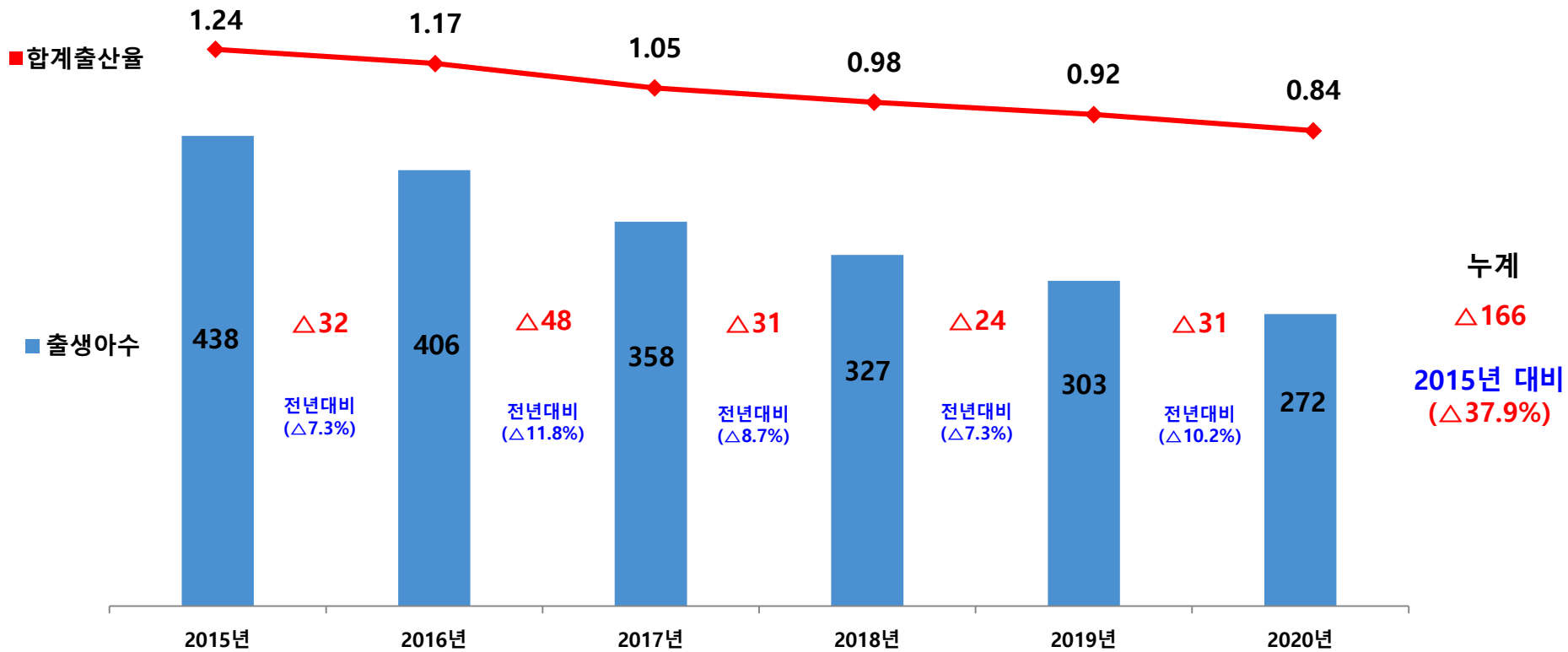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출생자	101	87	86	66	65	72	64	45	47	44	27.2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 출처 : 통계청, 출생통계

최근 5년간 저출생 추이

(단위 : 명,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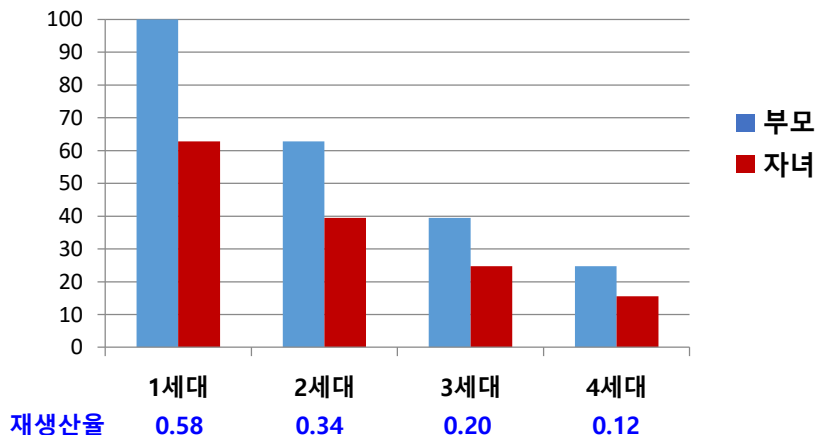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21.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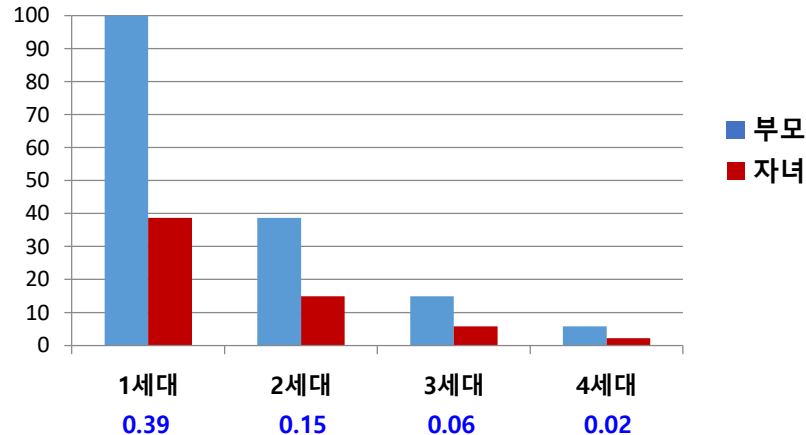
합계출산율과 세대 간 인구변화 시나리오

자녀수별 여성 비중(%)					합계 출산율(명)	세대간 인구 재생산율(%)
0명	1명	2명	3명	4명		
20	20	20	20	20	2.0	0.97
20	25	30	25	-	1.6	0.77
20	40	40	-	-	1.2	0.58
40	40	20	-	-	0.8	0.39

합계출산율 1.2 / 인구재생산율($\frac{1.2}{2.07}$) =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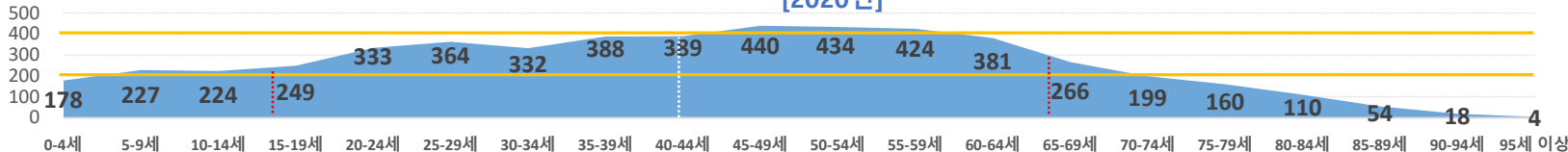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0.8 / 인구재생산율($\frac{0.8}{2.07}$) = 0.39



연령층별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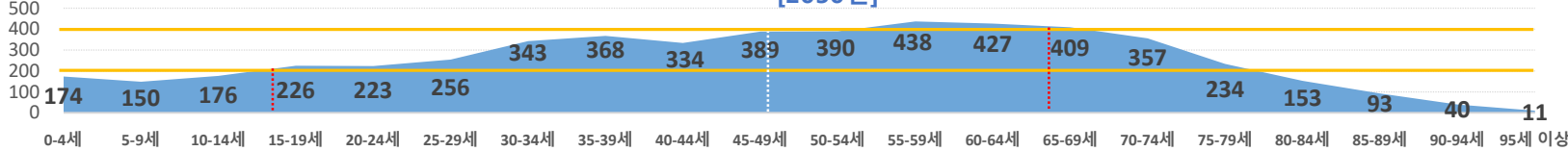
(단위 : 세, 만 명, %)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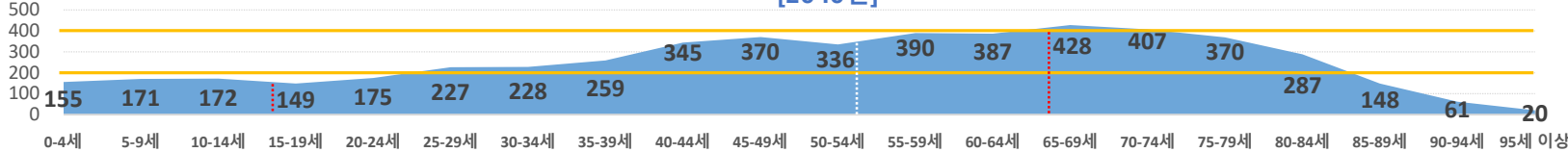
총인구	5,171만
고령화율	15.7
중위연령	43.7세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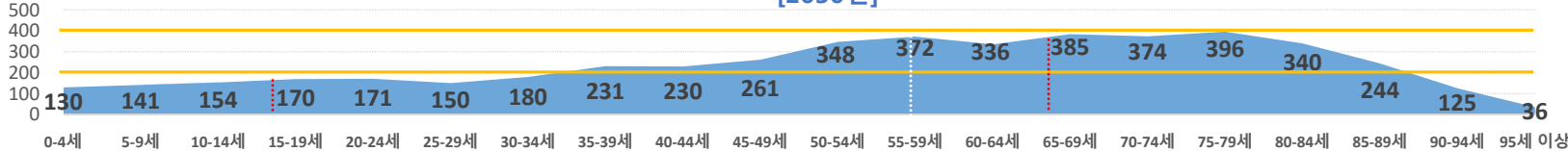
총인구	5,193만
고령화율	25.0
중위연령	49.5세

[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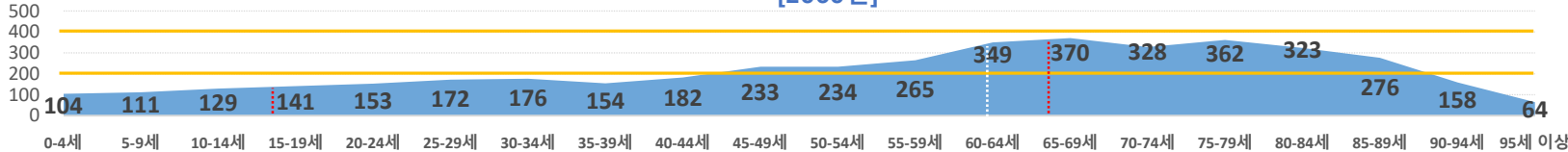
총인구	5,086만
고령화율	33.9
중위연령	54.4세

[2050년]



총인구	4,774만
고령화율	39.8
중위연령	57.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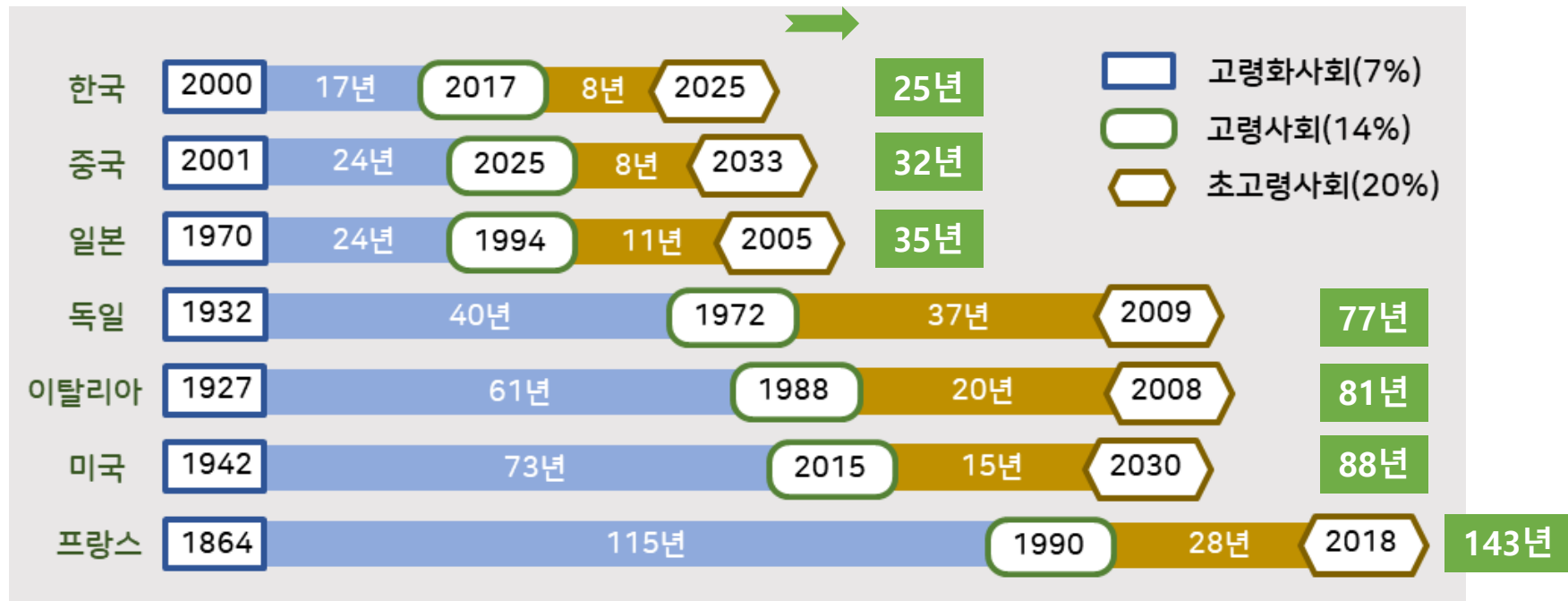
[2060년]



총인구	4,284만
고령화율	43.9
중위연령	6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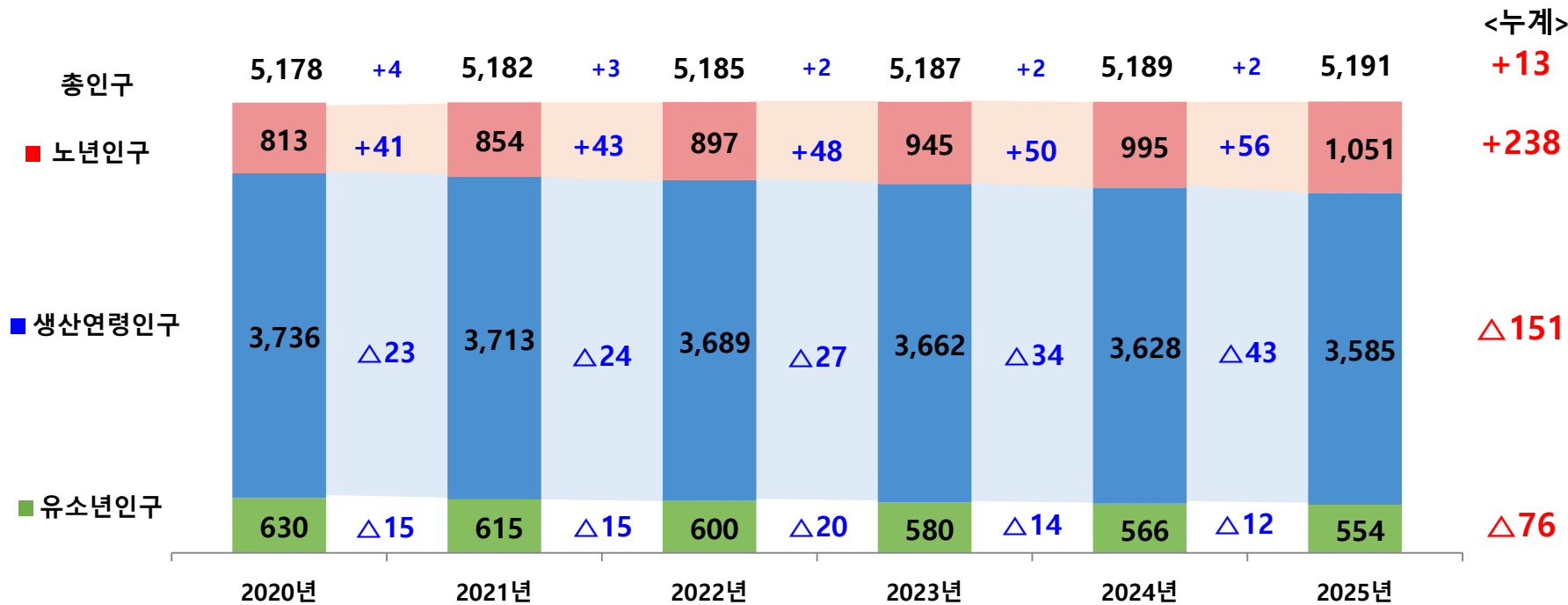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고령사회 도달 연도 및 소요연수



향후 5년간 고령화 추이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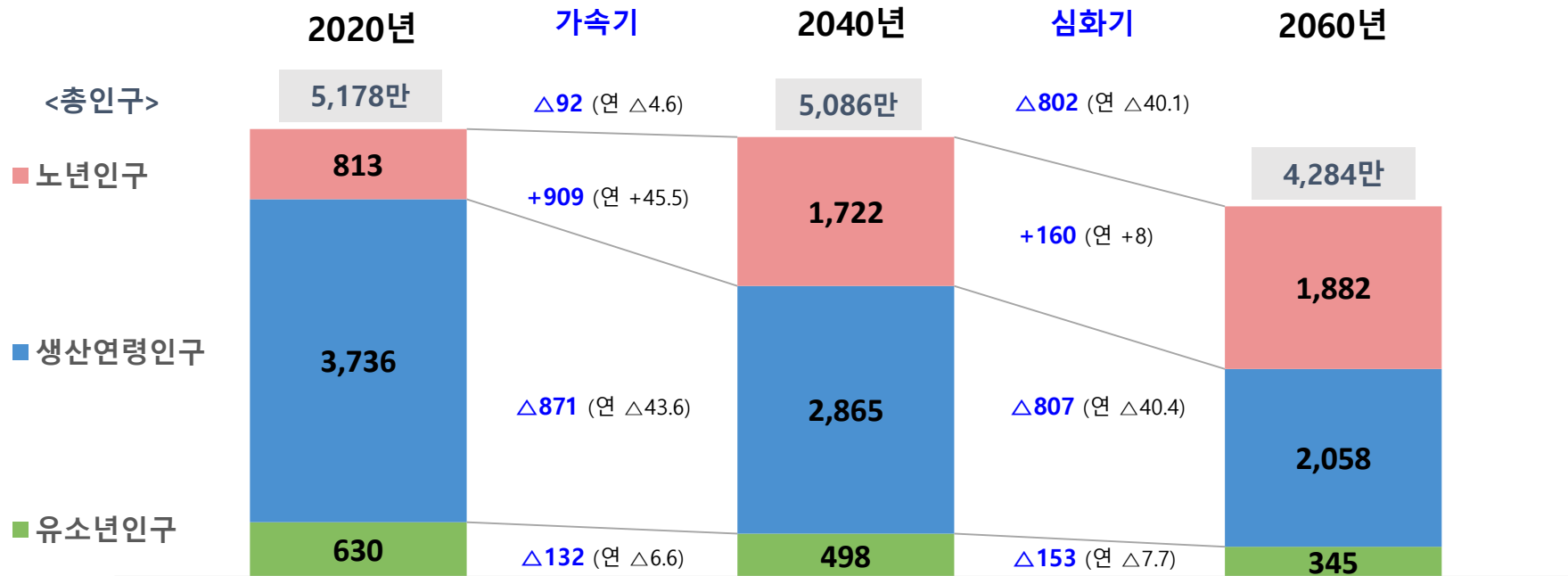


고령화율(%)	15.7	16.5	17.3	18.2	19.2	20.3
노년부양비(%)	21.7	23.0	24.3	25.8	27.4	29.3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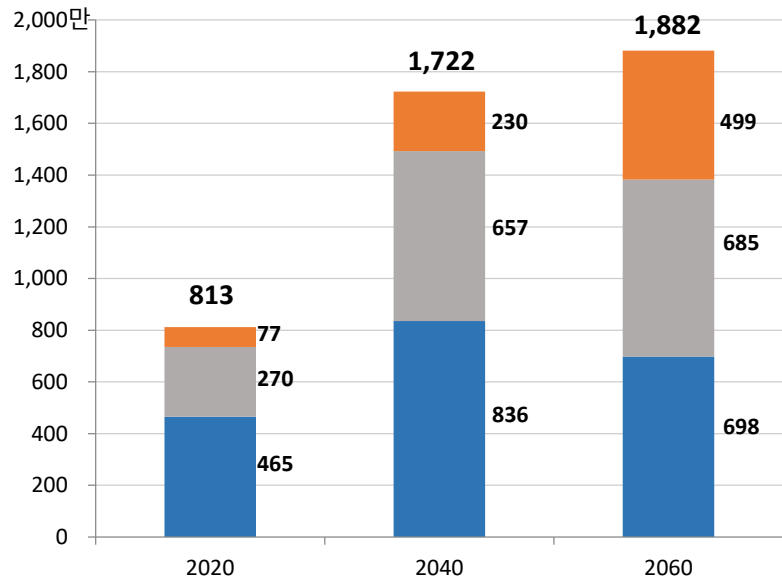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

(단위 :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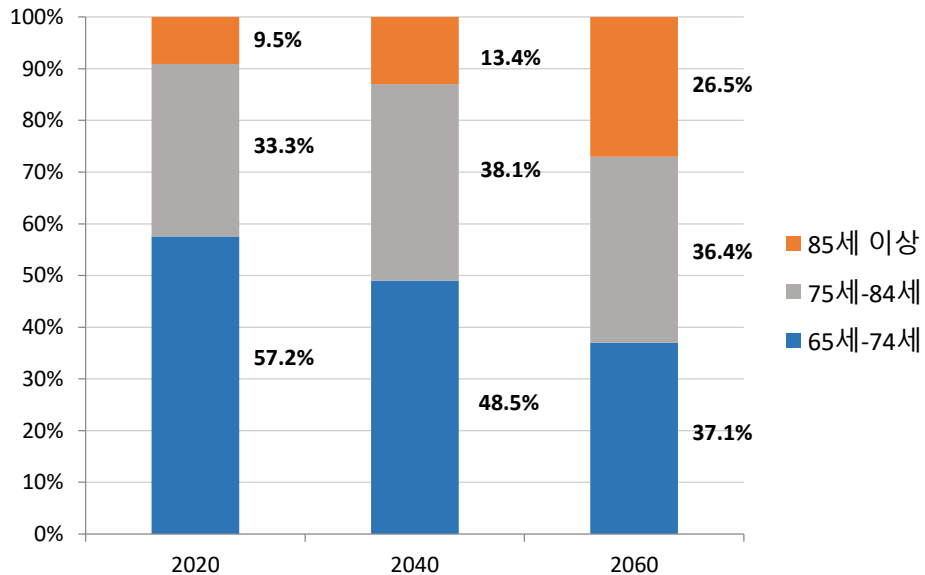


고령화율(%)	15.7	+18.2p (연 +0.9p)	33.9	+10p (연 +0.5p)	43.9
노년부양비(%)	21.7	+39.3p (연 +2.0p)	60.1	+31.3p (연 +1.6p)	91.4
중위연령(세)	43.7	+10.7p (연 +0.5p)	54.4	+6.9p (연 +0.4p)	61.3

인구 고령화



고령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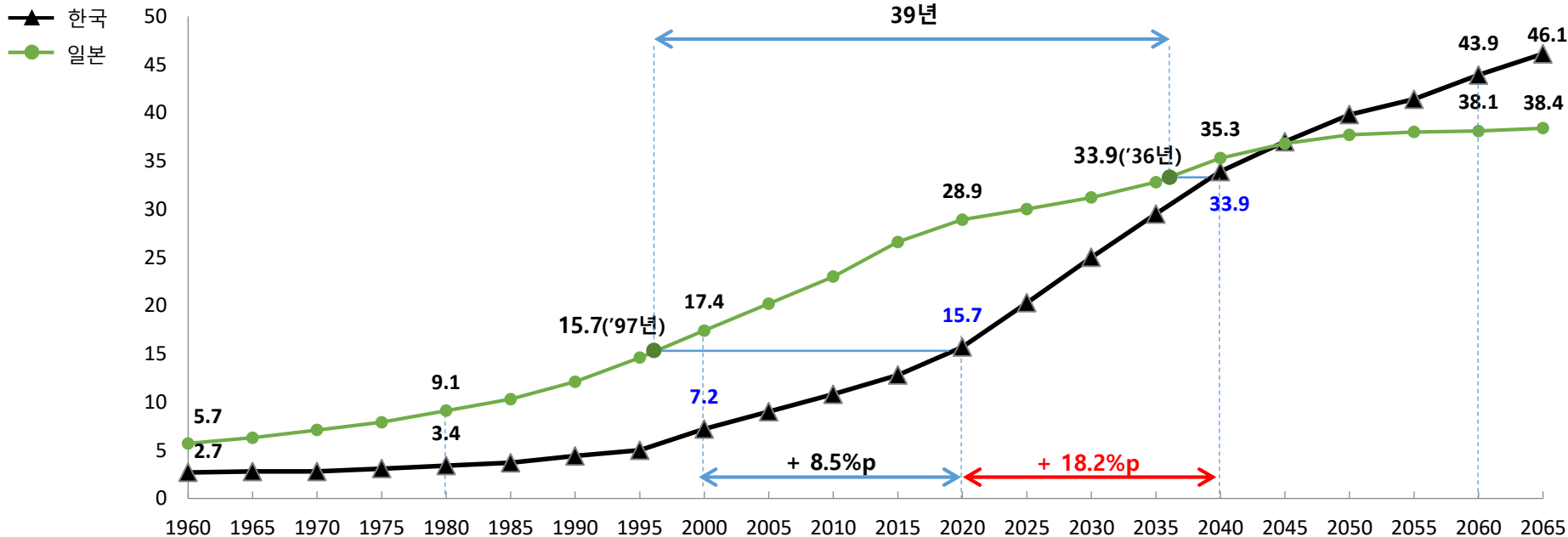
고령자 구성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고령화 추이 한·일간 비교

(단위 : %)

<고령화율>



<중위연령>

	1960	1973	1976	1996	1997	2014	2020	2023	2031	2039	2056	2065
한국	(19.0)	(18.9)	20.0세	(29.8)	30.3세	40.3세	43.7세	(45.5)	50.1세	54.0세	60.1세	(62.2)
일본	(25.6)	30.0세	(31.0)	40.0세	(40.4)	(46.4)	48.7세	50.0세	(52.6)	54.0세	(55.3)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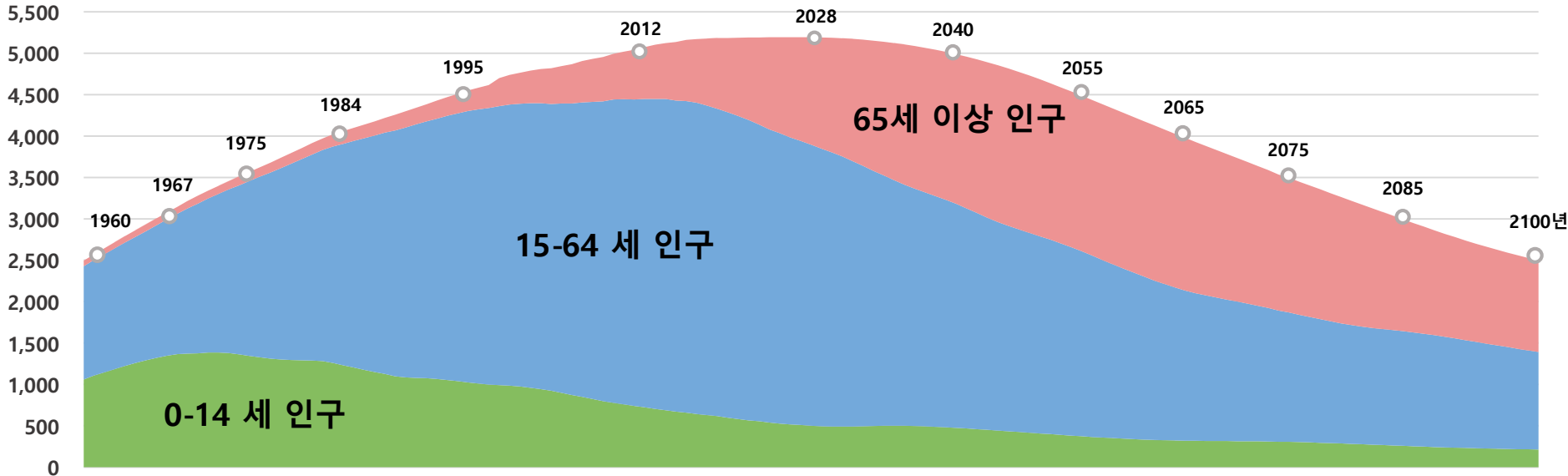
*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일본 자료 출처 : 내각부, 「고령사회백서」('19.6월)

일본 중위연령 : 기초통계 5년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1년 단위는 보간법(1차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인구 변화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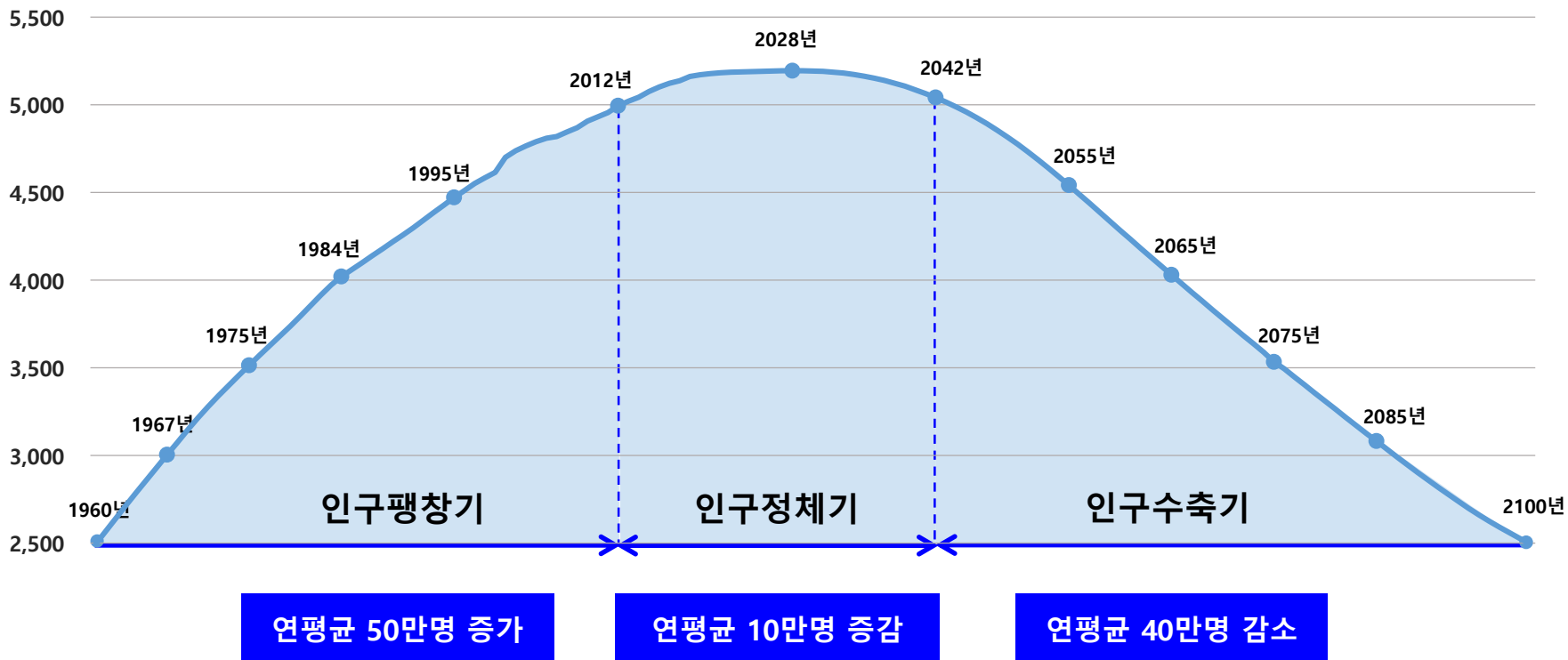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총인구수	2,501	3,224	3,812	4,287	4,701	4,955	5,178	5,193	5,086	4,774	4,284	3,782	3,309	2,861	2,497
유소년인구수	1,059	1,371	1,295	1,097	991	798	630	500	498	425	345	315	290	243	213
생신연령인구수	1,370	1,754	2,372	2,970	3,370	3,621	3,736	3,395	2,865	2,449	2,058	1,709	1,472	1,350	1,179
노년인구수	67	89	128	189	339	537	813	1,298	1,722	1,901	1,881	1,757	1,547	1,268	1,104
중위연령	19.0	18.5	21.8	27.0	31.8	37.9	43.7	49.5	54.4	57.9	61.3	62.2	62.4	60.6	60.7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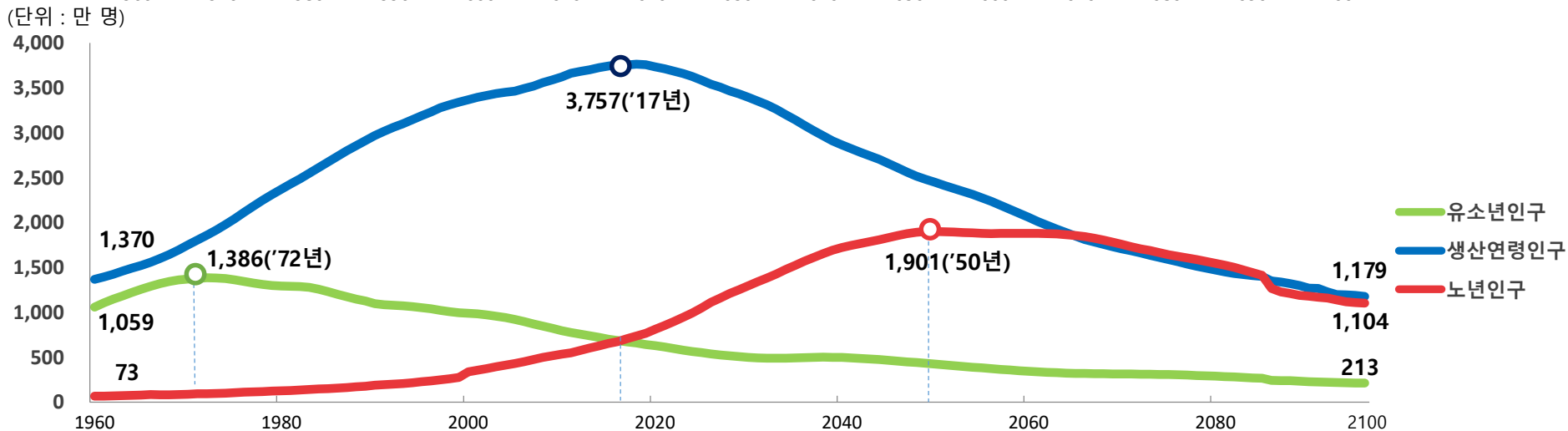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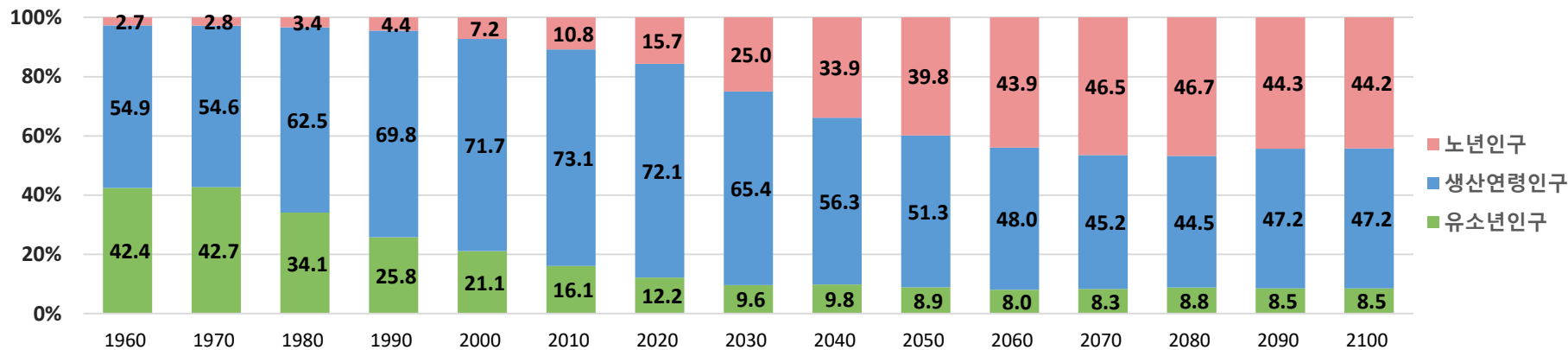
인구규모 변화

(단위 : 만 명)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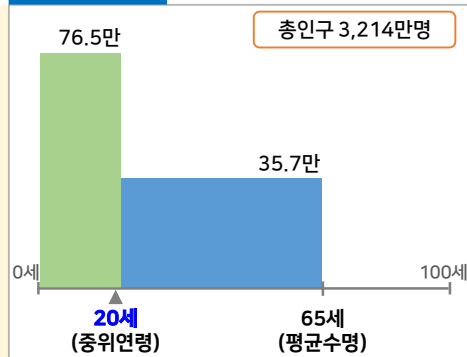
인구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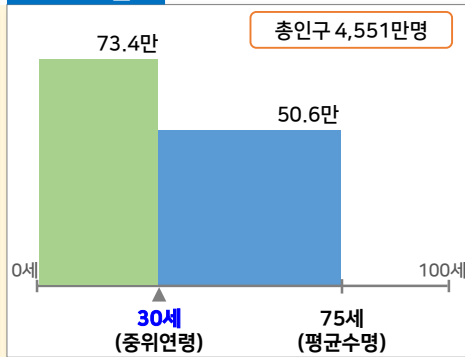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인구규모 및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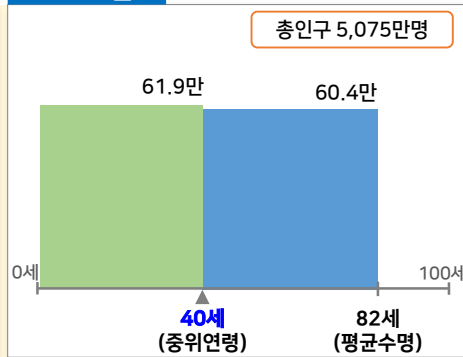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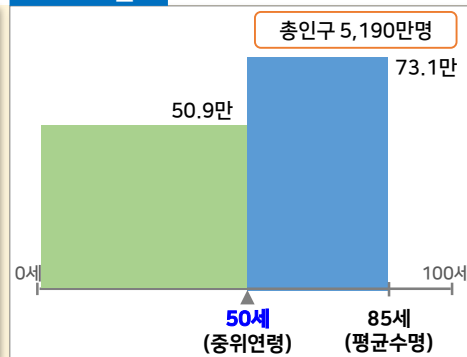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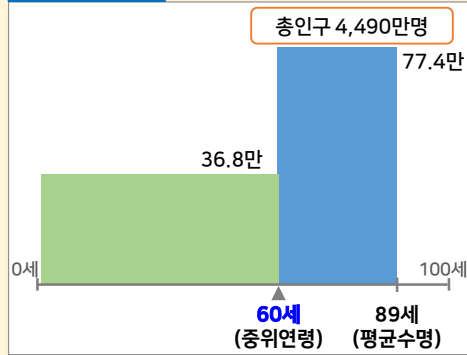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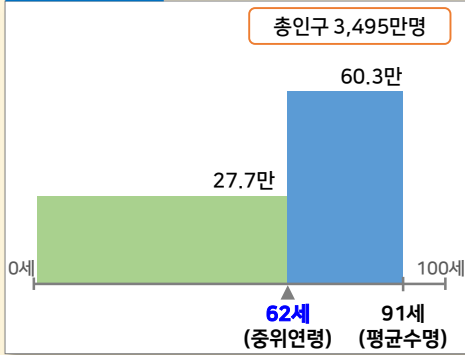
203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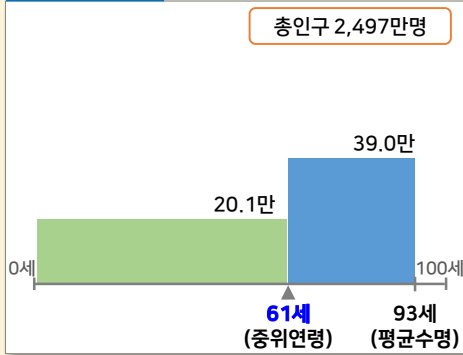
205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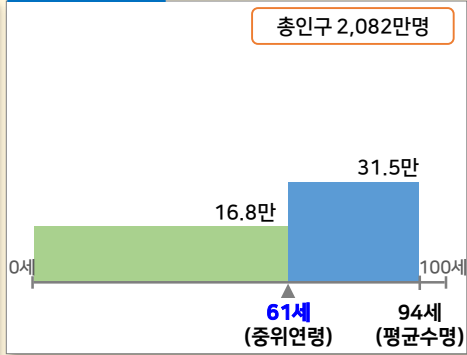
2076년



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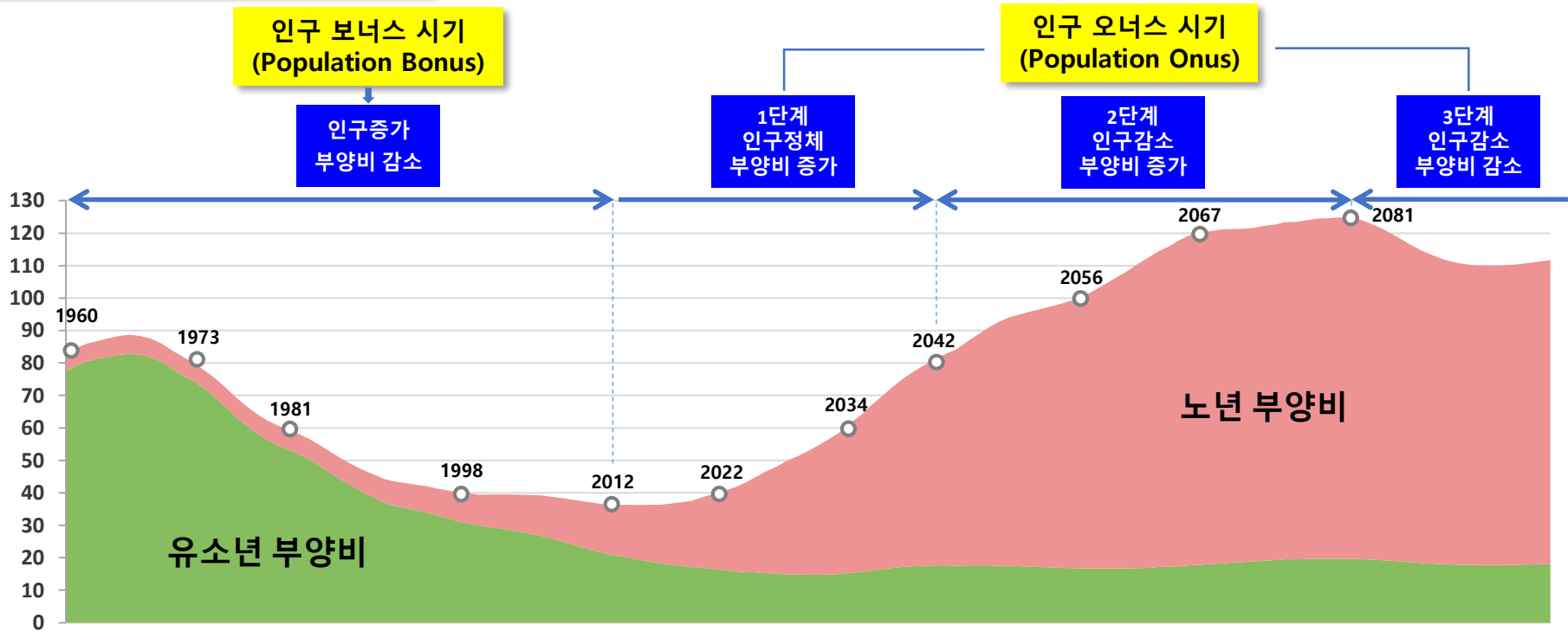


2117년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부양비 변화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6.9	38.6	53.0	77.5	95.0	108.2	121.2	124.8	111.9	111.7
유소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0	16.9	14.7	17.4	17.4	16.7	18.4	19.7	18.0	18.1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4.8	21.7	38.2	60.1	77.6	91.4	102.8	105.1	93.9	93.6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저출생 정책의 특성

정책영역

<개인의 완전한 자율>

- 출산여부
- 출산시기
- 출산규모

<개인의 완전한 통제>

- 사회규범 약화
- 임신예방(피임)
- 임신중지(낙태)

정책한계

<정당성 문제>

<실효성 문제>

정책단계

가족지원정책 – 낳은 자녀를 키우기 쉽게

- 아동보육,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사회경제정책 – 원하는 자녀를 낳기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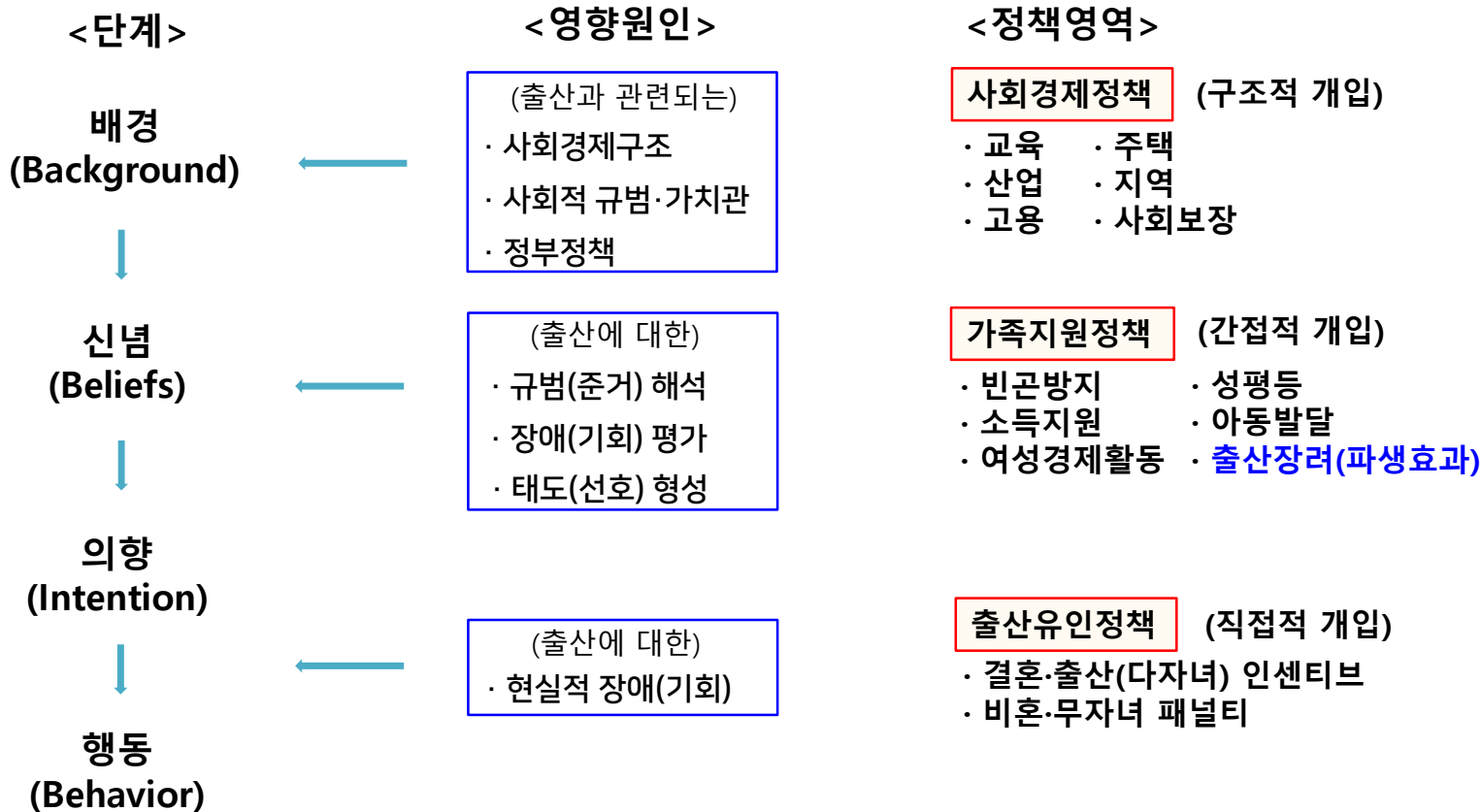
- 혼인과 출산 장애 요인(고용·주택·교육·사회보장 등) 완화 정책

출산장려정책 – 더 많은 자녀를 원하게

-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전환과 직접적인 인센티브 정책
(정당성, 실효성 문제 발생 여지)

저출생 대응 정책방향

출산과정 (계획된 행동)



정책목적을 고려한 저출산 예산 분류 (2021년)

(단위: 억원)

직접지원 (합계)		179,399
서비스 114,570 (63.9%)	0-2세 영육아 보육료 지원	49,343
	누리과정(3-5세) 예산 지원	39,168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15,719
	온종일돌봄	5,319
	아이돌봄 지원	3,956
	기타	5,391
현금 61,791 (34.4%)	아동수당	29,515
	가정양육수당 지원, 첫만남푸러미2	15,518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 보너스 포함)	12,869
	출산휴가급여	3,169
	기타	719
의료비 3,038 (1.7%)	임산부, 영아관리	2,205
	정신건강증진	577
	난임지원	21
	기타	235

간접지원 (합계)		287,446
주거 229,833 (80.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 자금 대출	99,000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주거 지원	80,069
	청년 임대 출자, 융자	46,538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4,226
고용 42,198 (14.7%)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14,355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 지원	12,349
	고용안정장려금	12,294
	인재양성 및 훈련지원	1,841
	여성경제활동 지원	901
	근로환경개선	326
기타	133	
교육 6,496 (2.2%)	학교공간 혁신	1,979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1,330
	교육급여	1,246
	기타	1,941
기타 (3.1%)	캠페인, 홍보, 시스템 구축 등	8,919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 ① 휴직자 최대 월 300만원(자녀 만 0세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사용시)
- +
② 中企 최대 월 200만원(자녀 만 0세 이내, 3개월 이상 사용시) 지급

영아수당 신설

-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월 50만원

첫 만남 꾸러미 도입

- 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확대)
- +
②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신설) 지급

공보육 확충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다자녀 지원 확대

- ① 3자녀 이상 가구 셋재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 +
②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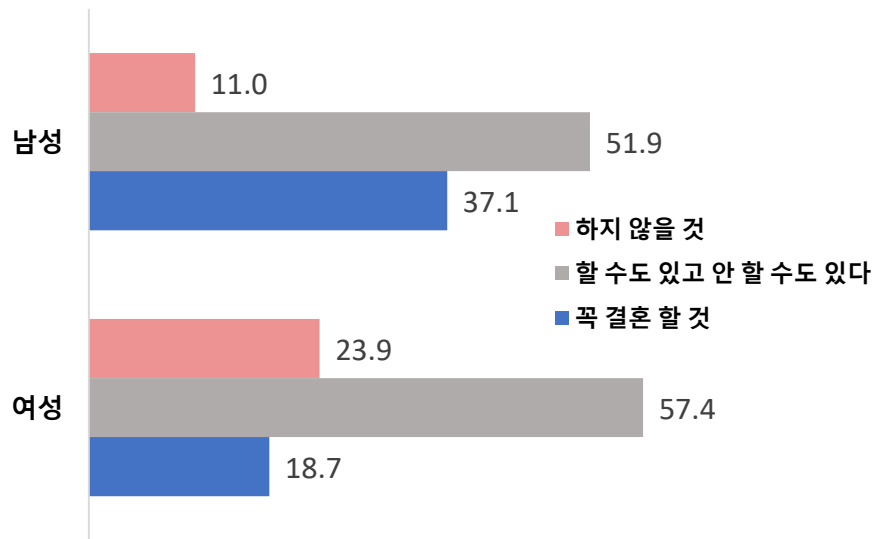
0세 기준 부모지원금 확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분		현행	신규	증가액	비고
육아휴직 수당	모	1,530 (150×3월+120×9월)	2,100 (200×1월+250×1월 +300×1월+150×9월)	570	12개월 사용
	부	750 (250×3월)	750 (200×1월+250×1월 +300×1월)	0	3개월 사용
영아수당		240 (20×12월)	600 (50×12월)	360	2025년 기준
첫만남 꾸러미	바우처	-	200	200	
	의료	60	100	40	
합계	(연간)	2,580	3,750	1,170	
	(월평균)	215.0	312.5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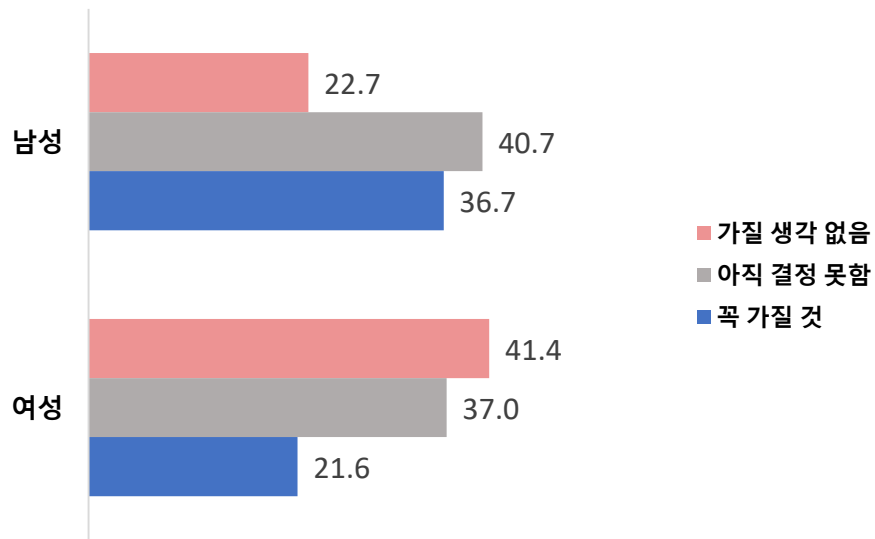
* 아동수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별도

저출생 원인 (청년층 인식)

< 결혼의향 >
(미혼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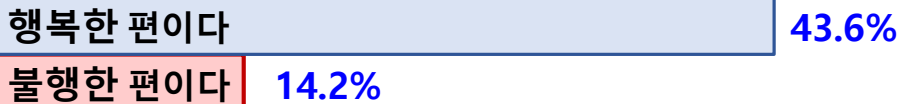


< 출산의향 >
(미혼자+기혼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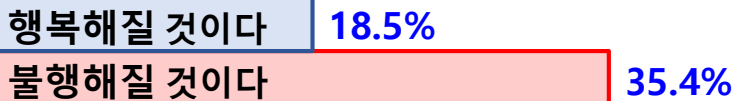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불안 (risk society)

· **윗세대**가 우리(청년)세대 보다



· **다음세대**가 우리(청년)세대 보다



자녀에 대한 책임 (intensive parenting)

'자녀'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1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23.7%
2	사랑/애정	16.7%
3	나의 일부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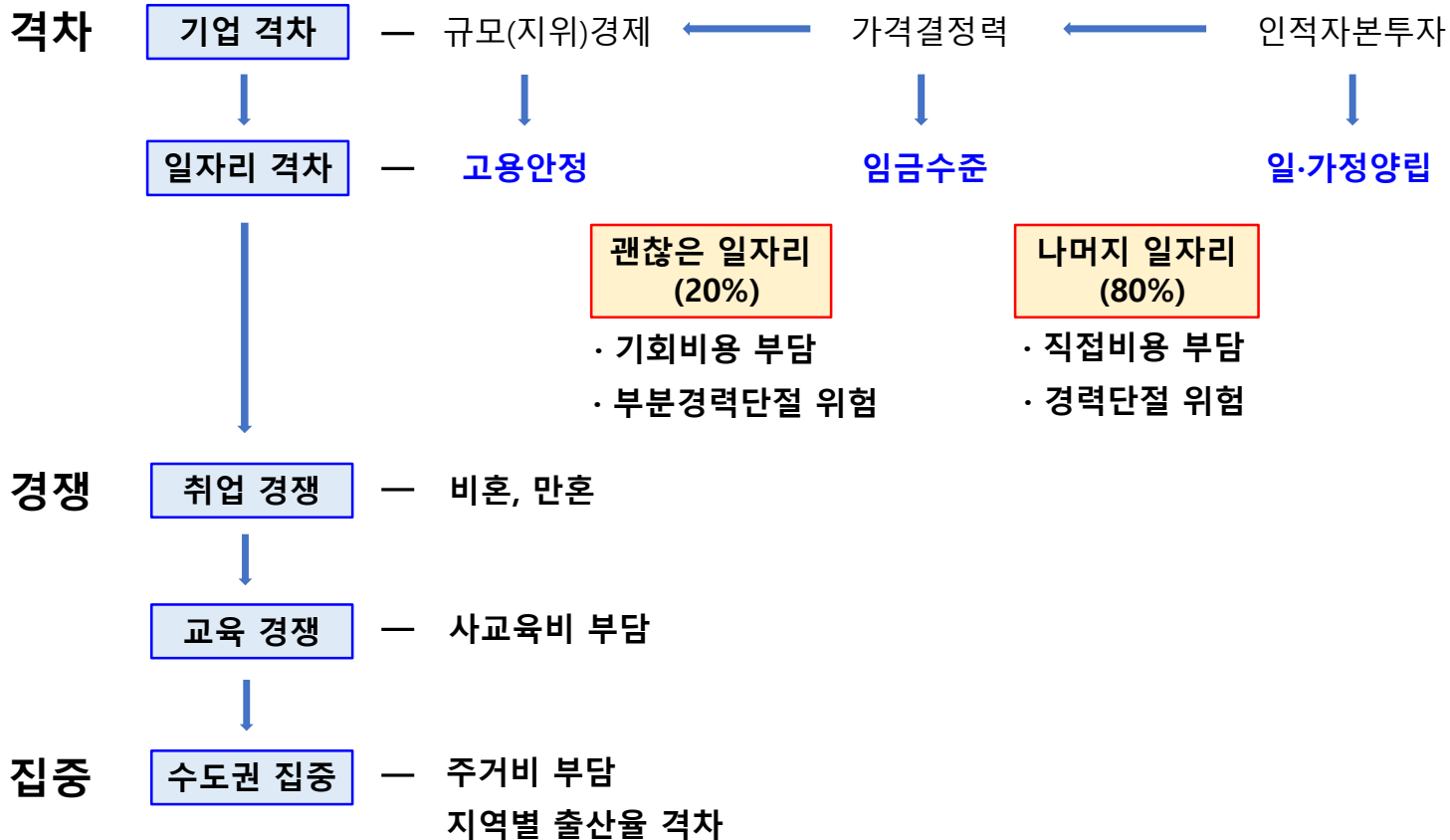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1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돼서(책임감)	24.6%
2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24.3%
3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17.4%

출산을 선택한 삶 = 3불(不)의 삶

- 더 불안(不安)해질 수 있다
- 더 불리(不利)해질 수 있다
- 더 부족(不足)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 구조



일자리 격차

구 분	근로자 수(천명)	비중(%)	비 고
합 계	23,604	100.0	

1. 임금근로자	19,167	81.2	
1.1 고임금근로층 (월보수 402만원 이상 , 중위 585만원) - A	4,792	20.3	대기업정규직(2,252) 공공부문정규직(1,743)
1.2 중임금근로층 (월보수 233-402만원 , 중위 300만원) - B	4,792	20.3	대기업 비정규직(409) 중소기업 정규직(9,771) 공공부문 비정규직(708)
1.3 저임금근로층 (월보수 136-233만원 , 중위 185만원) - C	4,792	20.3	중소기업 비정규직(355 3)
1.4 한계근로층 (월보수 136만원 미만 , 중위 65만원) - D	4,792	20.3	중소영세(10인미만) 비정규직(4,574)

2. 실업자 - E	4,437	18.8	
2.1 구직실업자	(1,063)	(4.5)	공식실업자
2.2 비구직실업자	(1,703)	(7.2)	잠재구직자
2.3 비임금근로자(노동시장 편입대상)	(1,671)	(7.1)	자영업자(5,606)와 무급 가족종사자(1,077)의 1/4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현황 (2019년)

구 모	총 종사자수(A)*		육아휴직 대상자(B)**			육아휴직 사용자(C)***		
	만개	비율(%)	명	비율(%)	종사자수 대비(B/A)	명	비율(%)	대상자수 대비(C/B)
4인 이하 등	621.5	25.9	45,605	14.3	0.7	8,946	5.6	19.6
5인 ~ 49인	638.0	26.6	69,874	21.9	1.1	25,506	16.0	36.5
50인 ~ 299인	371.8	15.5	53,054	16.6	1.4	21,931	13.8	41.3
300인 이상	770.8	32.1	150,374	47.1	2.0	102,866	64.6	68.4
합계	2,401.9	100.0	319,101	100.0	1.3	159,153	100.0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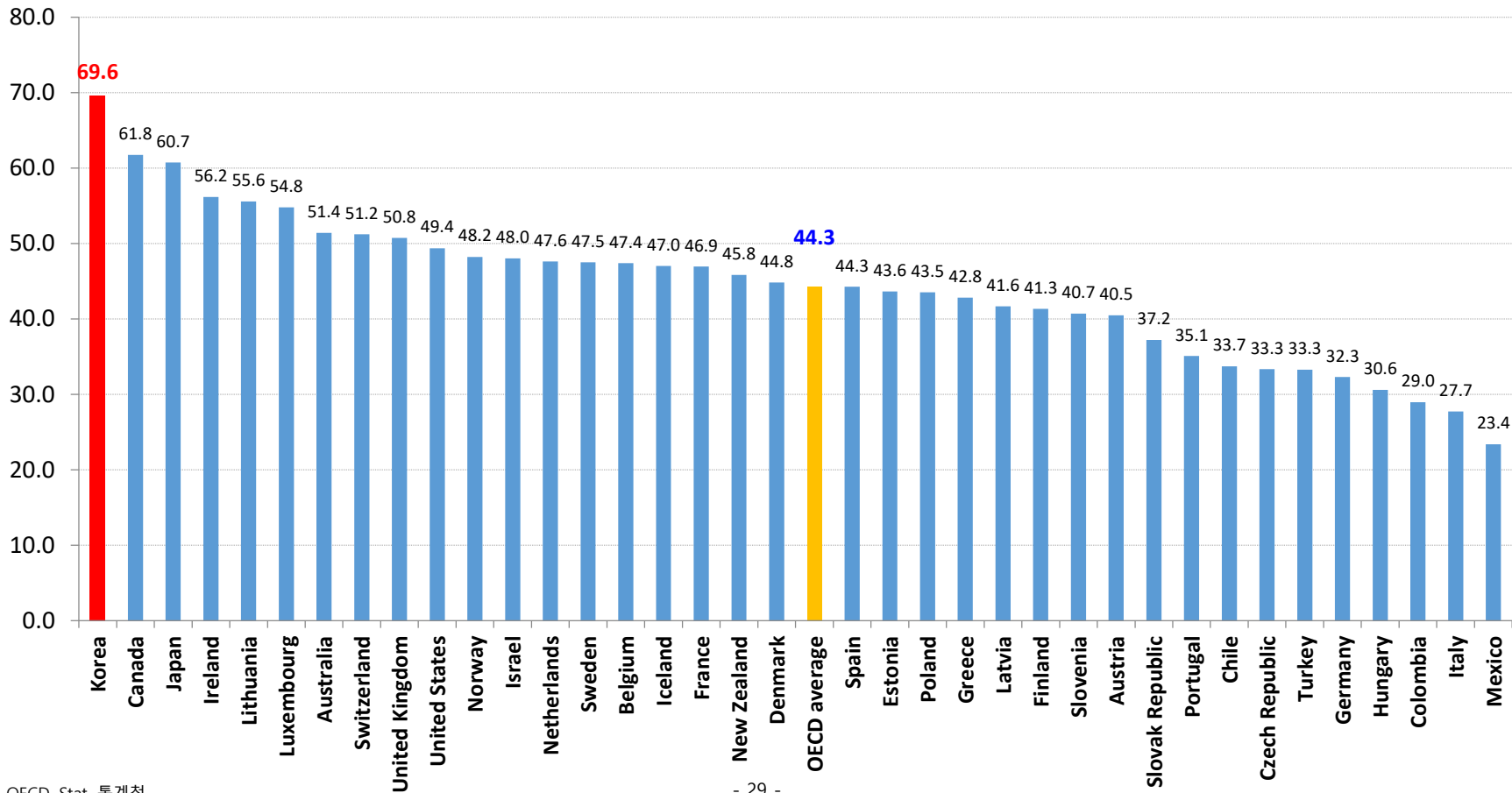
* 일자리행정통계(2019)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2019년) 육아휴직 대상자

*** 당해연도(2019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수

대학 진학률 (2018)

(단위 : %)



* 출처 : OECD, Stat,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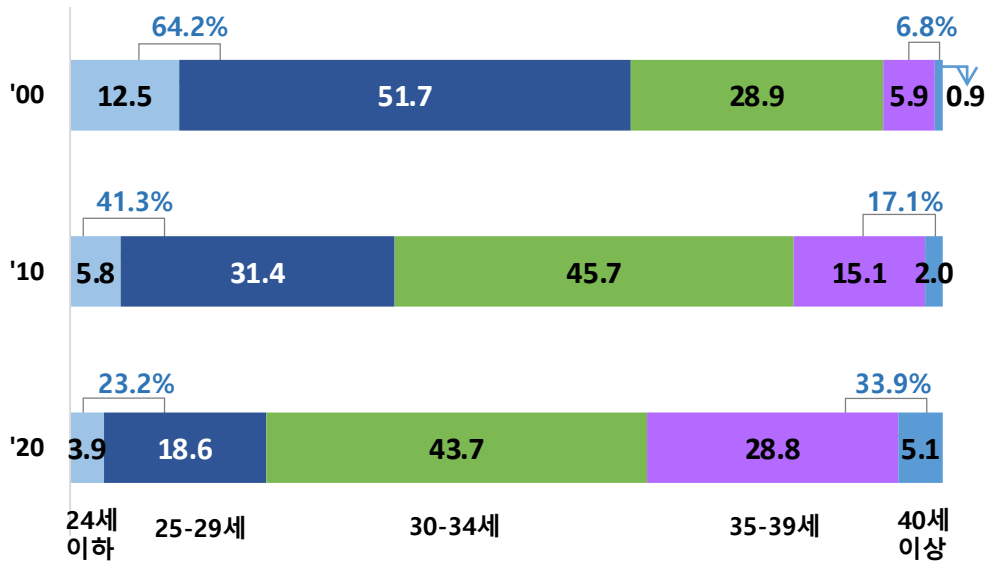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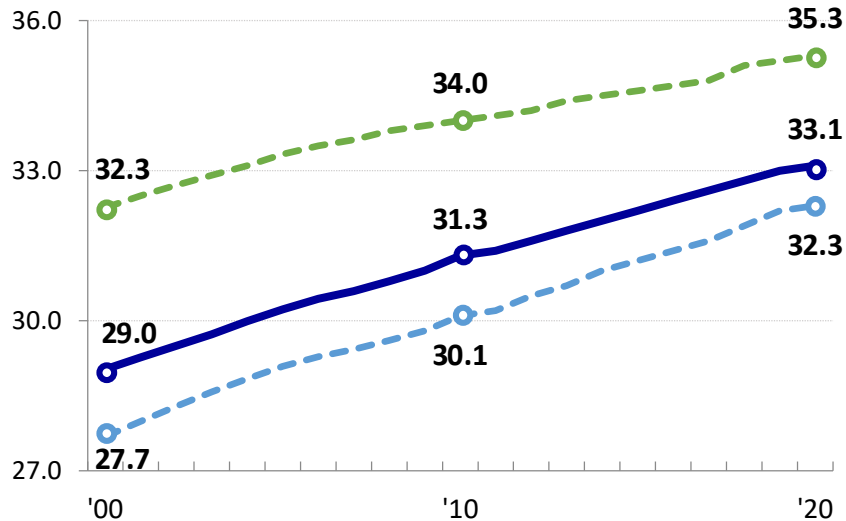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및 비중

< 평균 출산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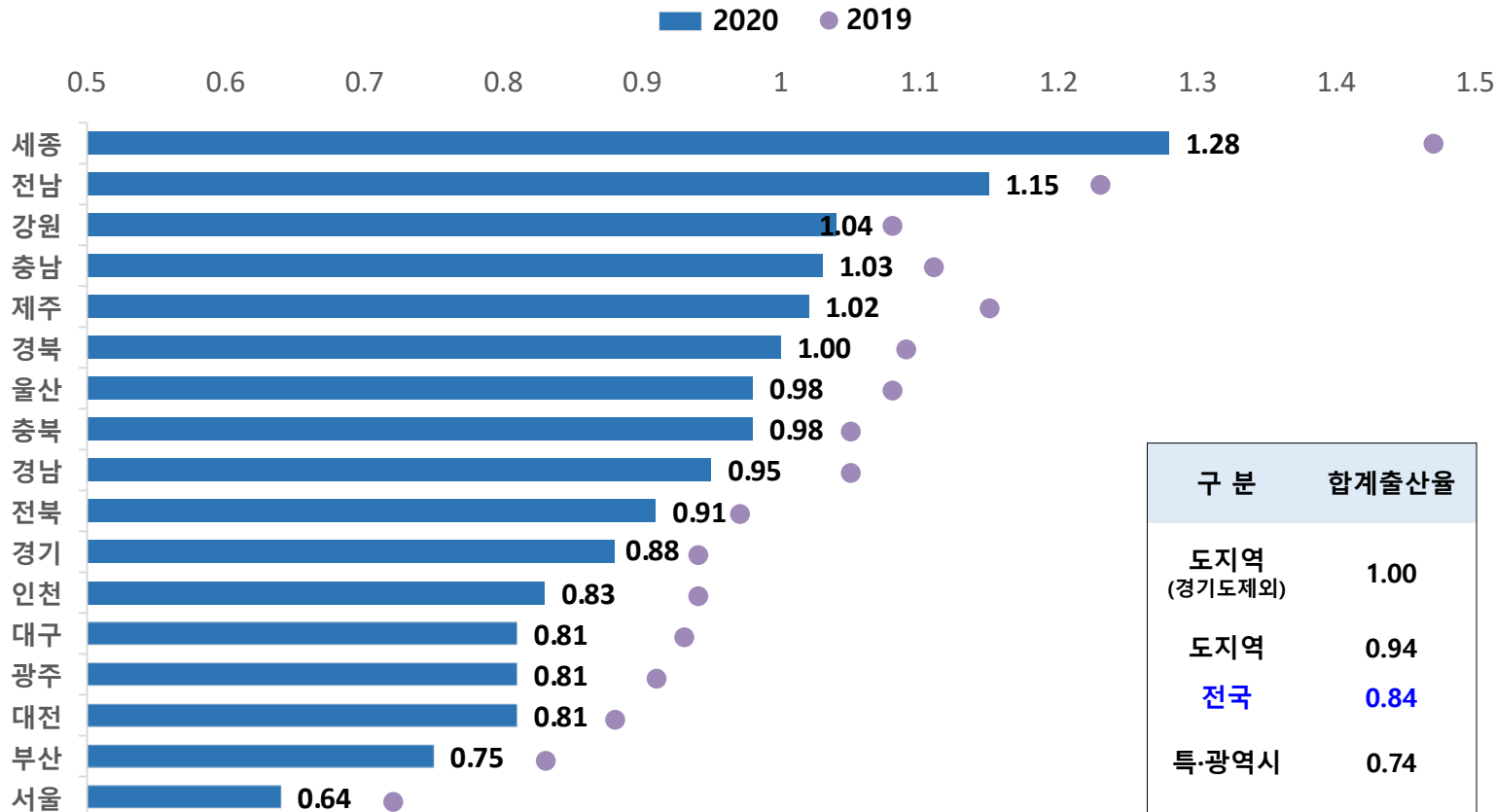
< 출산연령 비중 >

(단위 : 세)

--- 첫째아 --- 셋째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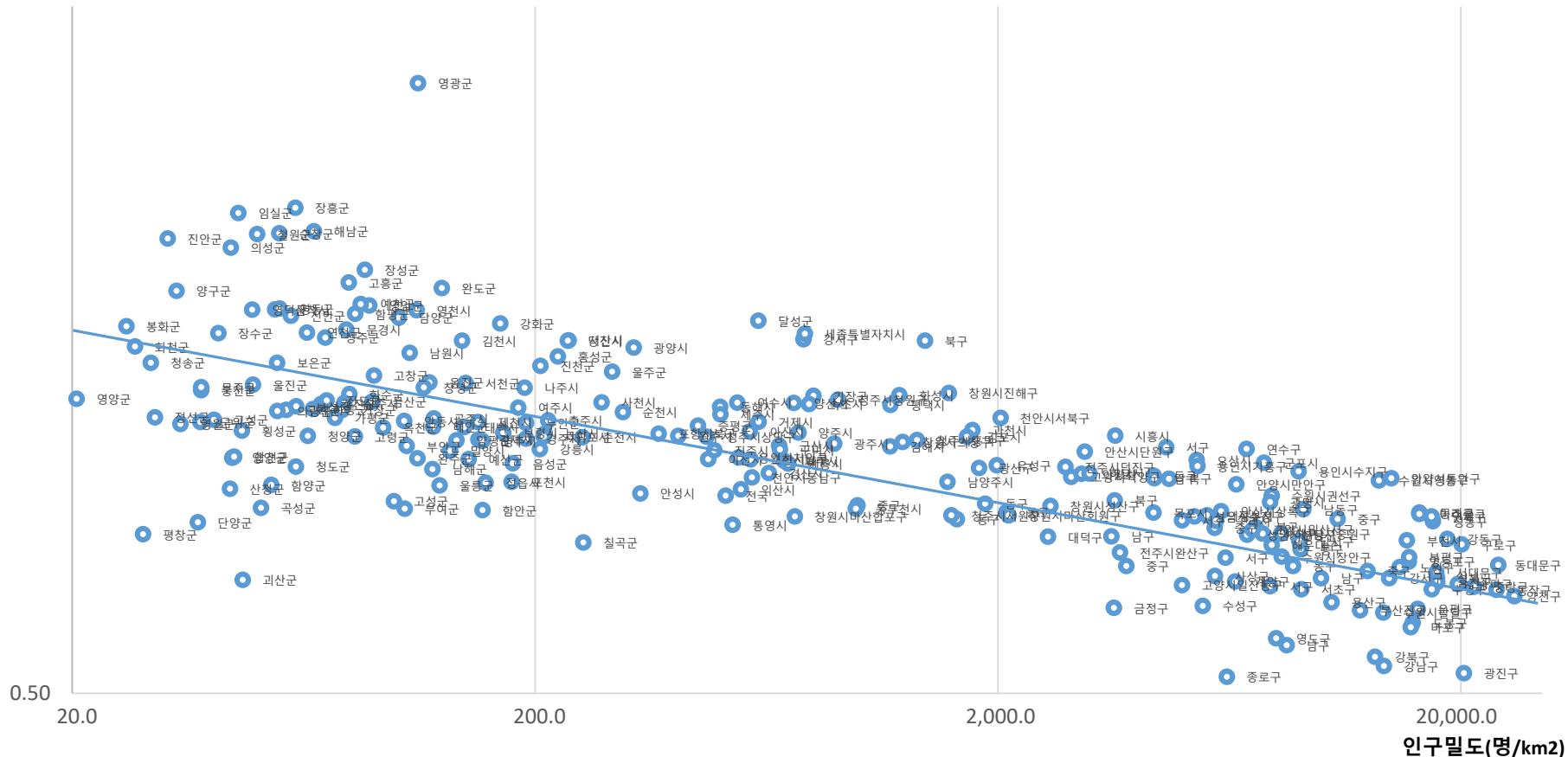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이



구 분	합계출산율
도지역 (경기도제외)	1.00
도지역	0.94
전국	0.84
특·광역시	0.74
서울	0.64

시군구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합계출산율(명)



* 출처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동향), 인구밀도(=주민등록인구현황/국토부 지적통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참고

연령층별 수도권 인구 비중

(단위 : 전국 대비,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p
전체	43.1	45.7	46.3	48.2	49.3	49.5	50.1
0-14세	42.8	46.1	47.1	48.5	49.3	49.7	49.9
15-64세	43.5	45.9	47.1	49.5	50.7	50.6	51.5
(15-24세)	41.8	44.3	45.4	48.4	49.2	48.7	49.6
(25-34세)	48.8	50.4	50.7	53.2	54.1	54.0	55.5
(35-64세)	41.2	44.2	46.1	48.3	49.9	50.2	50.8
65세이상	32.8	34.4	35.3	37.7	40.0	42.7	44.1

격차 · 경쟁 · 집중 해소 관건

동일노동



동일**직무**

동일임금



동일**보상** (임금, 근로조건)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산업분야 :	제조업 - 서비스업
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성 별 :	남성 - 여성
근속기간 :	청년 - 장년 - 노년
근로시간 :	풀타임 - 파트타임
지 역 :	수도권-비수도권

목표

- 인구의 질적 재생산 (* 저출산 대책 : 인구의 양적 재생산)
- 주 생산층(부양층)의 생산력 \geq 주 소비층(피부양층)의 소비력

방안

A. 주 생산인구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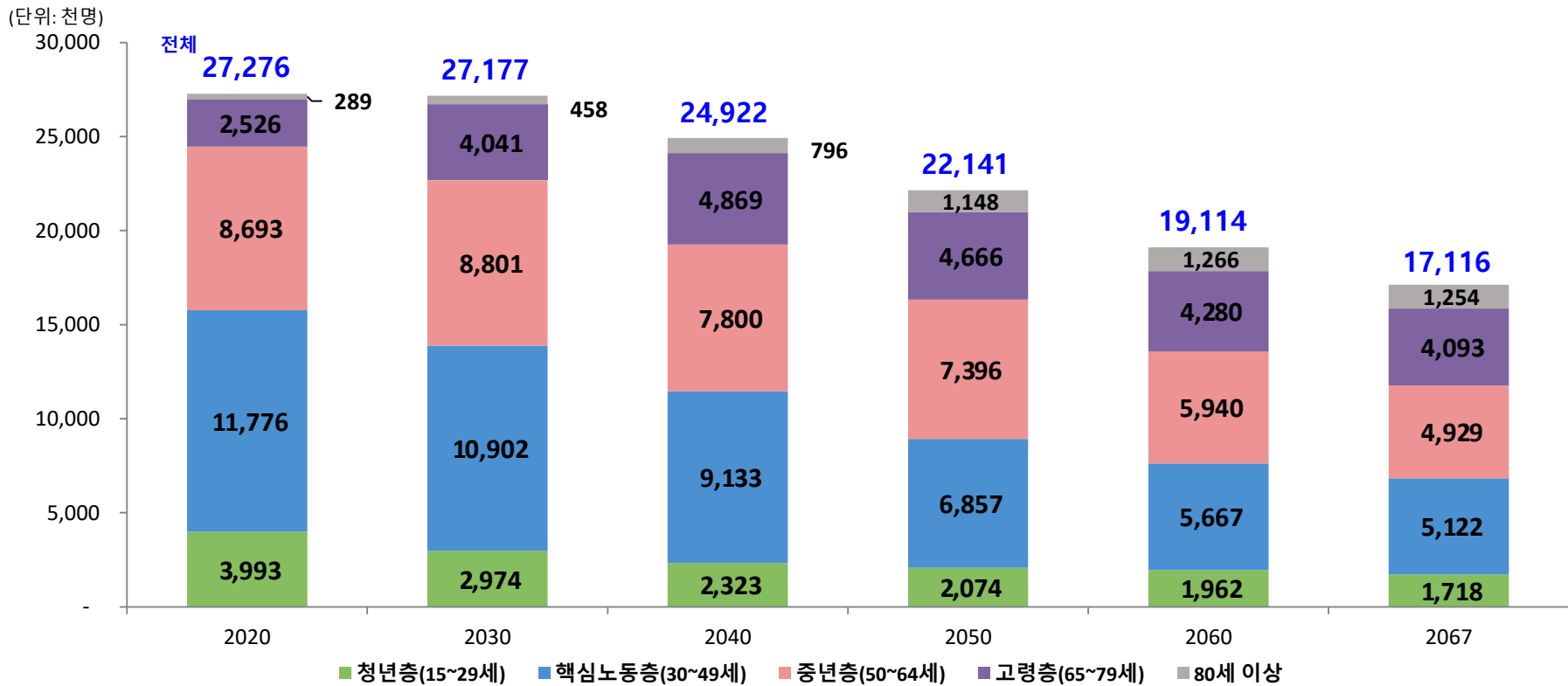
A-1. 주 생산인구층의 규모 (정년·노인연령기준)

A-2. 주 생산인구층의 고용률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B. 주 생산인구층 생산성 제고 (제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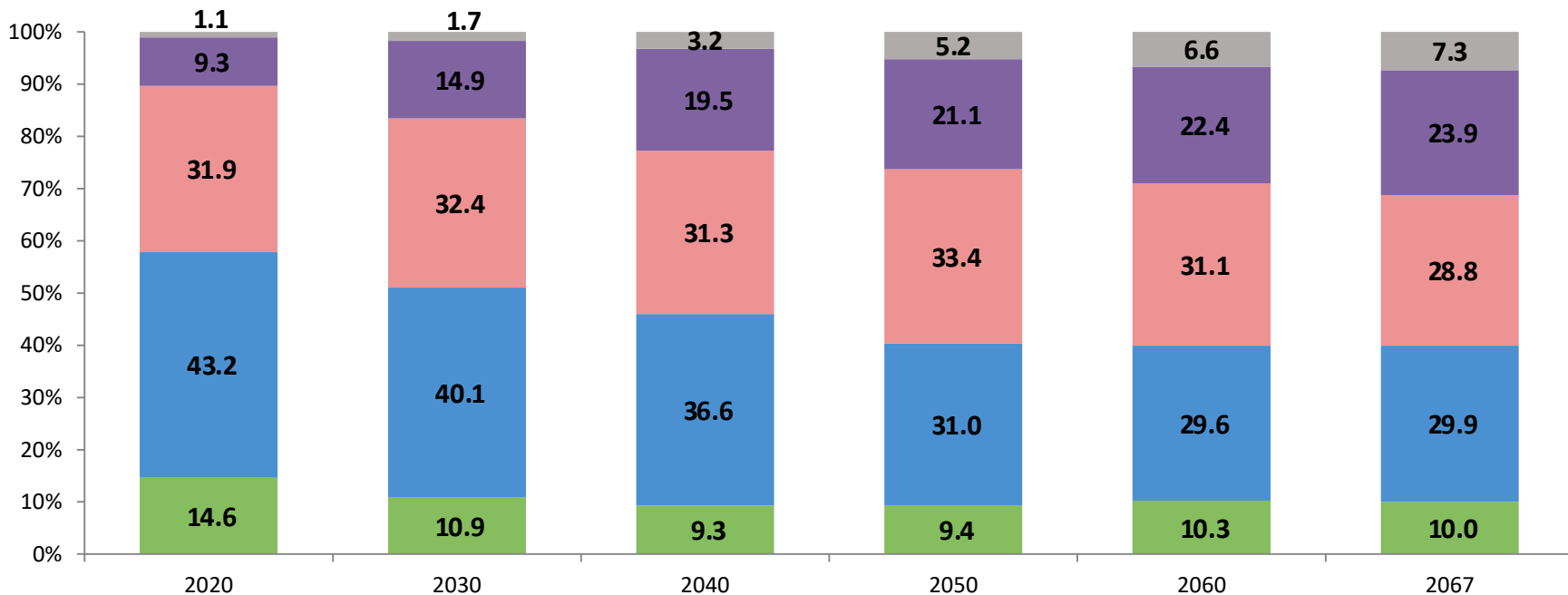
C. 주 소비인구층 소비성 억제 (노인의료비, 장기요양비, 주거비)

연령층별 장래 취업자 수 추계



연령층	15~29세	30~49세	50~64세	65~79세	80세 이상
고용률(%)	42.2	76.0	70.1	40.4	15.4

연령층별 장래 취업자 구성 추계



<고용률>

■ 청년층(15~29세) ■ 핵심노동층(30~49세) ■ 중년층(50~64세) ■ 고령층(65~79세) ■ 80세 이상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7년
15~64세	65.5	66.8	67.2	66.7	65.9	66.0
15세 이상	60.0	57.9	54.3	50.9	48.5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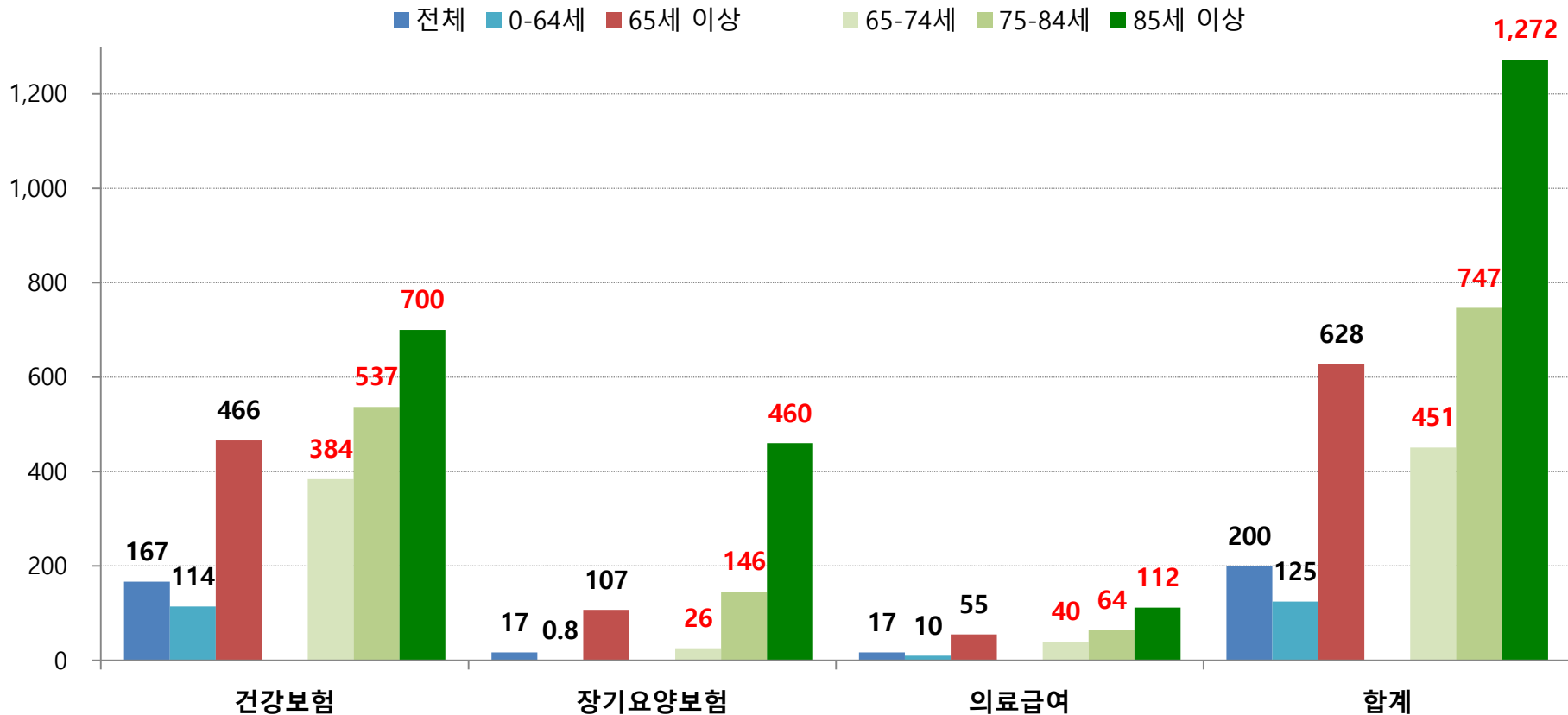
고령자 인구 및 가구 추계

(단위 : 만, %)

	2020	2047	증감	비고령자
총인구	5,179	4,775	△404	
고령자인구	813	1,879	+1,046	(△1,470)
고령화율	15.7	38.4	+22.7p	
총가구	2,035	2,230	+195	
1인가구	617	832	+215	
고령자가구	464	1,106	+642	(△447)
총가구 대비	22.8	49.6	+26.8p	
고령자 1인가구	159	405	+246	(△31)
전체 1인가구 대비	25.8	48.7	+22.9p	

연령층별 1인당 의료비 (2019년 기준)

(단위 : 만원)



연령층별 의료비 전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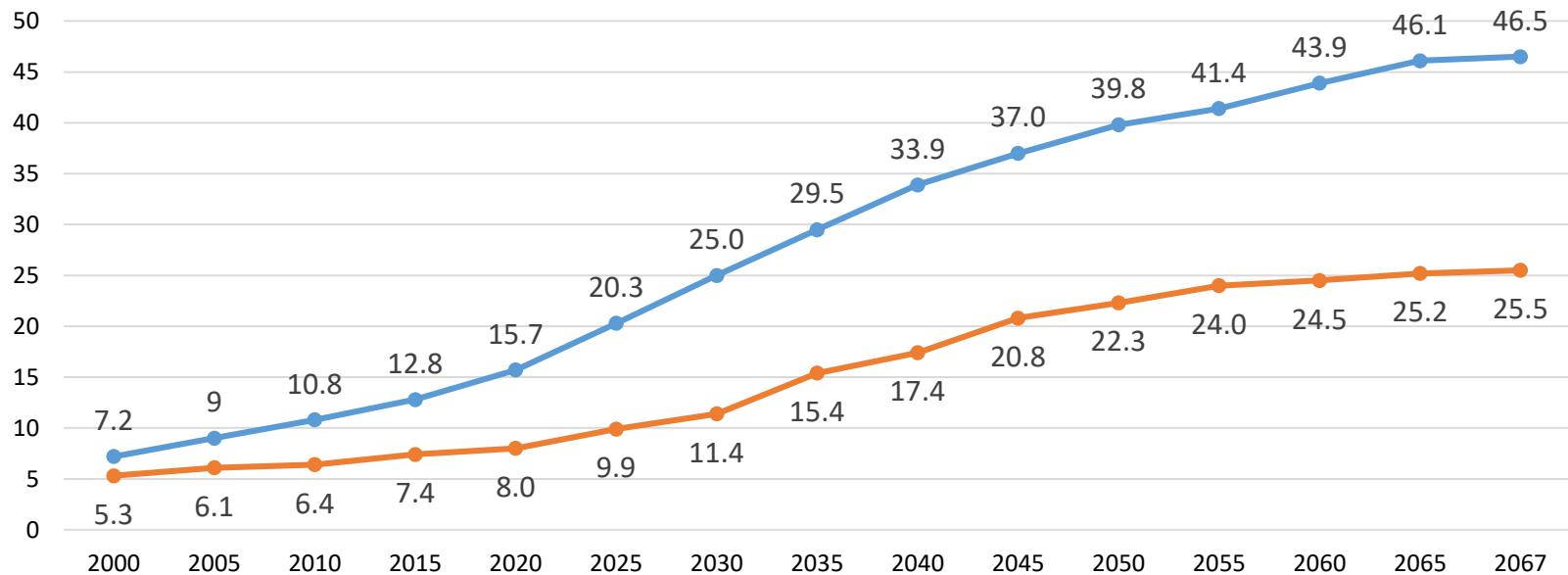


* 출처 : 2018년 기준 1인당 의료비×장래인구추계

고령화율

(단위 : %)

고령화율(A) 고령화율(B) 고령화율 A. 65세 기준 / B. 기대여명 15년 연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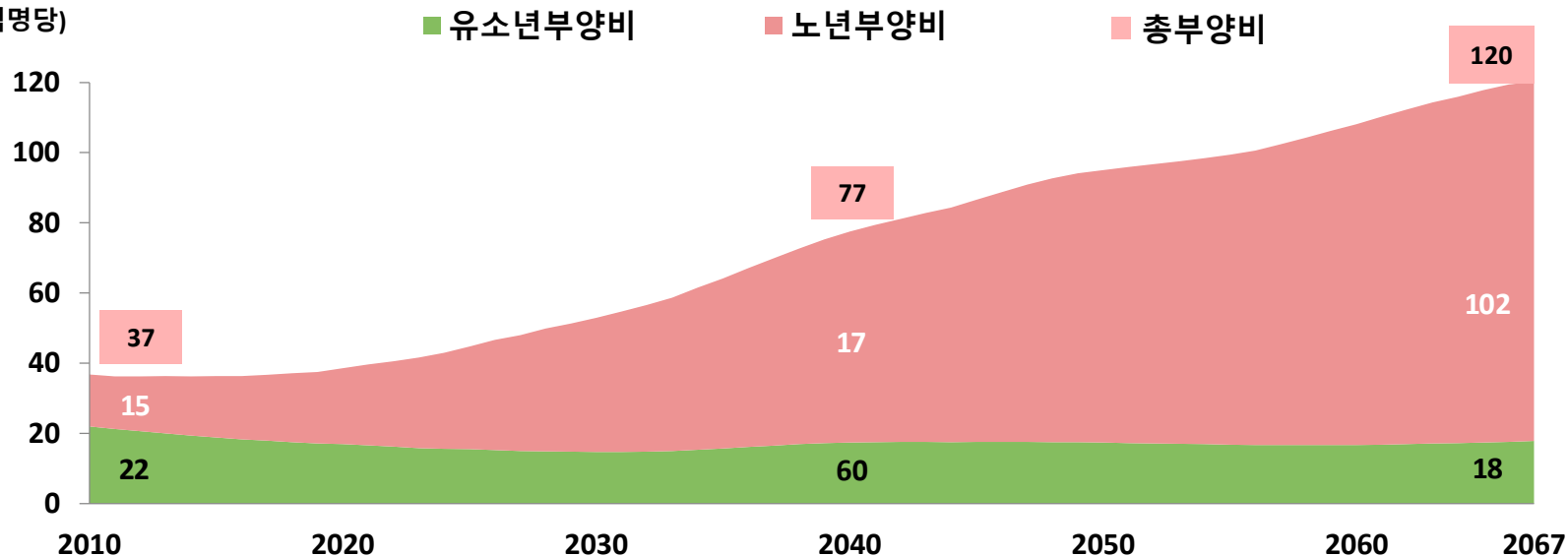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67
평균수명	76	78	80	82	83	84	85	86	87	88	88	89	89	90	90
기대여명 15년 연령	68	69	71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7
고령화율(A)	7.2	9.0	10.8	12.8	15.7	20.3	25.0	29.5	33.9	37.0	39.8	41.4	43.9	46.1	46.5
고령화율(B)	5.3	6.1	6.4	7.4	8.0	9.9	11.4	15.4	17.4	20.8	22.3	24.0	24.5	25.2	25.5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03.27.), 완전생명표, 장래생명표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5-64세 기준)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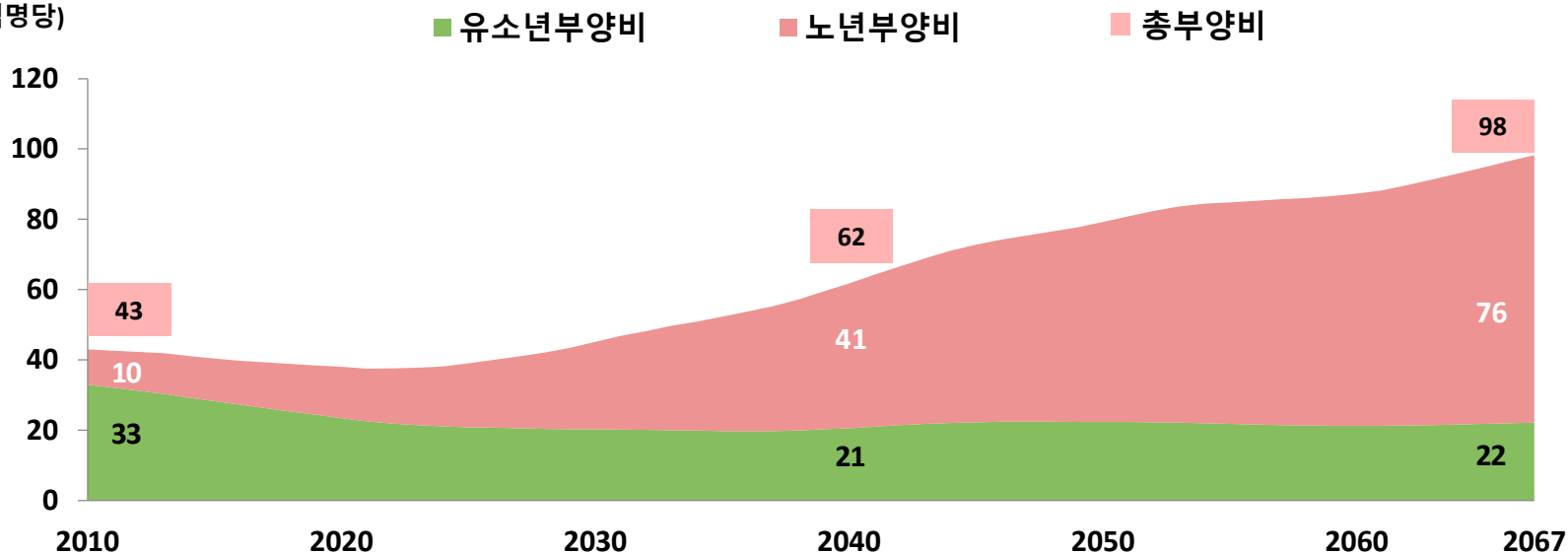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부양비	36.8	38.6	52.9	77.5	95.0	108.1	120.2
유소년부양비	22.0	16.9	14.7	17.4	17.4	16.7	17.8
노년부양비	14.8	21.7	38.2	60.1	77.6	91.4	102.4
노령화지수	67.2	129.0	259.6	345.7	447.2	546.1	574.5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69세 기준)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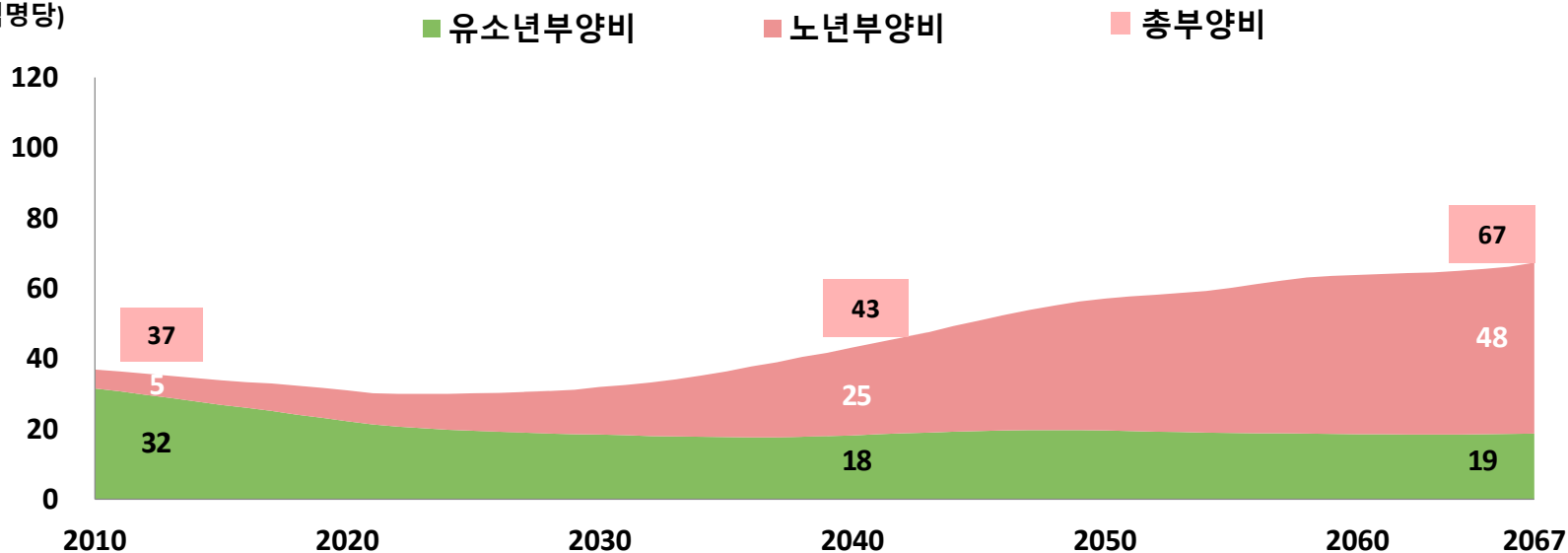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부양비	43.0	38.0	45.1	61.7	79.2	87.3	98.3
유소년부양비	32.9	23.4	20.3	20.6	22.3	21.2	22.2
노년부양비	10.1	14.6	24.8	41.1	56.9	66.1	76.1
노령화지수	30.6	62.2	122.4	200.1	254.9	311.6	343.1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74세 기준)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부양비	36.9	31.0	32.0	43.2	57.1	63.8	67.3
유소년부양비	31.5	22.2	18.4	18.2	19.6	18.6	18.7
노년부양비	5.4	8.8	13.5	25.0	37.6	45.3	48.6
노령화지수	17.1	39.5	73.3	137.1	191.9	244.0	259.7

· 새로운 인구규모 구조 →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요구

· 경제사회시스템(ESG)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하여 소비할 것인가”

- “누가” (Government)

생산참여자 (비참여자)

- “무엇을” (Social)

생산참여자 간, 생산참여자와 생산비참여자 간의 분배

- “얼마나” (어떻게)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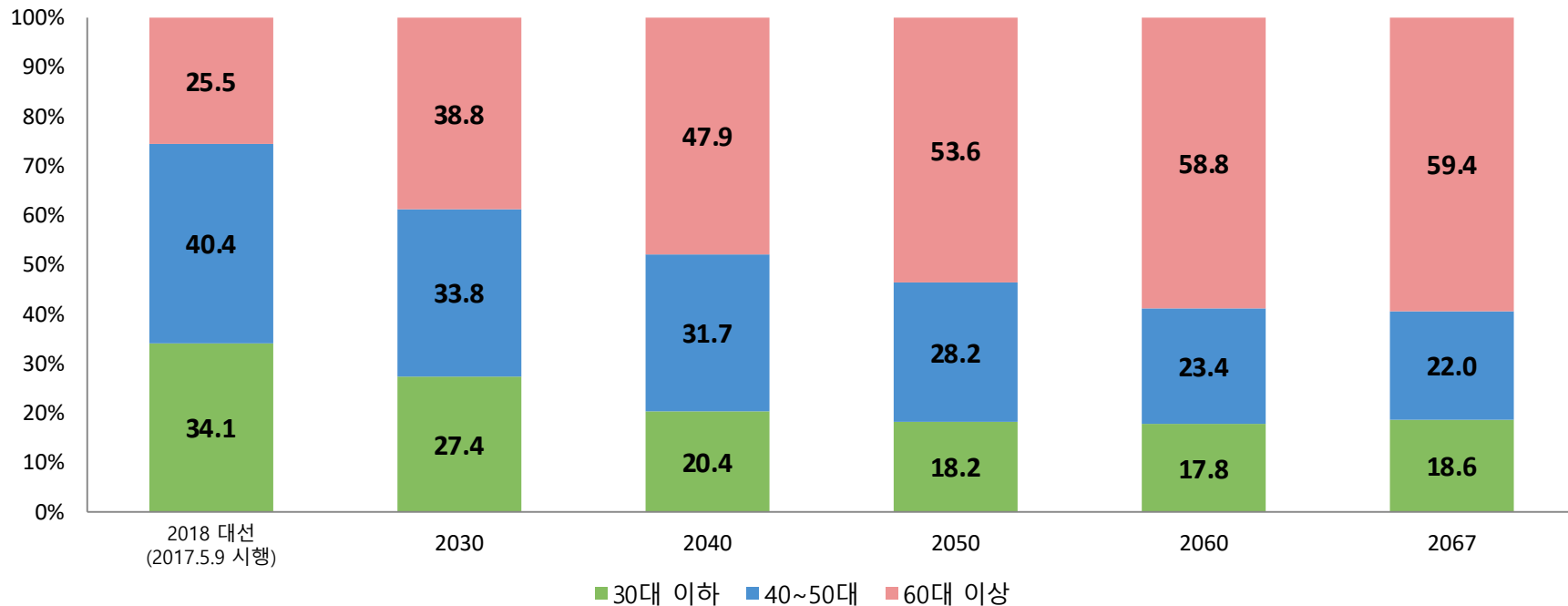
생산방식(기술)과 소비수준(생태계)

· 자원분배, 보상기준의 협상·선택의 문제 - 정치적 의사결정

·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알력 발생

연령계층별 투표자 수 비중

- Sliver Democracy
- Gerontocracy



<유권자 중위연령 추이>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67
중위연령(세)	48.3	51.1	53.5	55.7	58.4	60.4	61.6	62.9	64.4	65.6	66.0

마무리

-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의 공동체나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완화대응(저출산대책)과 적응대응(고령사회정책)의 조응이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하고 섬세한 피드백이 필요한 저출산대책(현장집행기능이 중요)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망과 부문 간의 조정이 필요한 고령사회정책(종합심의기능이 중요)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 이원화된 정책추진 거버넌스(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재부-인구정책T/F)를 재고해야함.
-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 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함.
-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이 절실함. (최후의 10년)
향후 10년 이내에 부모세대 인구규모가 크게 줄고(60만명대→40만명대)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 (2020년 16%,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함.
(2017년 기준, OECD 평균 GDP의 2.34%, 한국 GDP의 1.30%)